



문 : 文 / 기획특집

《소사벌》 제40호 발간 특집

- 04 《소사벌》 창간호부터 제40호까지
문화사업부
- 10 평택의 정체성을 기록하는
문화플랫폼 《소사벌》
송은옥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연구팀 부장
- 14 기억에 남는 《소사벌》 이야기
문화기획부

화 : 化 / 잇다

《소사벌》 연재

- 20 빛바랜 사진이야기
박성복 Pyeongtaek Photobank 대표
- 24 평택문화를 반추하다
황수근 문화사업부 학예연구사
- 28 여기는 평택이다
최치선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 32 우리지역 문화예술인
글로벌리즘 아티스트
배춘효 조형예술작가
- 36 평택카페로드
최희련 문화기획부 주임
- 40 경기도이야기 - 용인편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용인학연구소장
- 44 평택시청년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임성은 평택시청년지원센터 매니저

소사벌

2023

평택 문화의 향기를 담아내는 종합문예지
Culture Magazine Sosabul Vol. 40

2023년 10월 / 통권 제40호

발행인 평택문화원장 이보선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신태식
위 원 박성복, 강기중, 김희경, 이형범, 홍인석
편집 오민영, 최치선, 황수근, 최희련



발행처 평택문화원
발행일 2023년 10월 31일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전화번호 031-655-2002
전송 031-654-8807
홈페이지 www.ptmunhwa.or.kr
출판 나무기획 031-654-0104

© 2023 평택문화원 ISSN 1739-9556
※ 이 책의 게재 내용은 평택문화원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평택문화원의 동의 없이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이 책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평 : 平 / 채우다

평택문화 이야기

- 48 찾아가는 우리마을 역사교실
김해규 평택인문연구소장
- 52 민속음악의 아버지 지영희
뮤지컬로 환생
임 봄 '신아위 혼' 작가
- 56 (주)인트리와 그림자 연극 이야기
박경민 (주)인트리 대표
- 60 희망의 근거 : 알파탄약고
공간문화재생 운동의 성과와 과제
황우갑 알파문화예술공원추진위원회 사무국장
- 64 쌀 그리고 空間米學^{공간미학}
전대경 평택 미듬영농조합법인 대표
- 68 복합문화예술공간 다다
문화기획부
- 72 주민과 문화적 행복을 설계합니다
경상현 우리문화달구지 단장



택 : 澤 / 더하다

평택문화원 이야기

- 76 평택시의회 간담회
'평택문화원의 역할과 과제'
문화기획부
- 78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팀
- 82 인턴의 하루
김가람 평택시 인턴
- 84 시간이 담긴 공간에서
김한솔 옷다리문화촌 주임
- 88 다시 찾아온 한·미 어린이 서머스쿨
김채민 문화사업부 주임
- 92 평택문화원 CAFE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추진위원회
- 96 평택문화원 소개



소사벌 제2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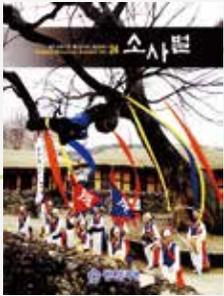
소사벌 제29호



소사벌 제19호



소사벌 제6호



소사벌 제24호



소사벌 제2호



소사벌 제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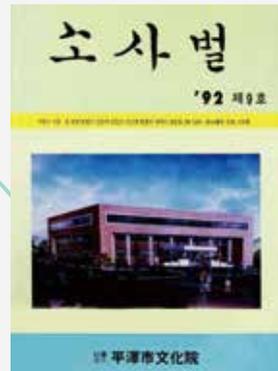
소사벌 제11호



소사벌 제21호



소사벌 제2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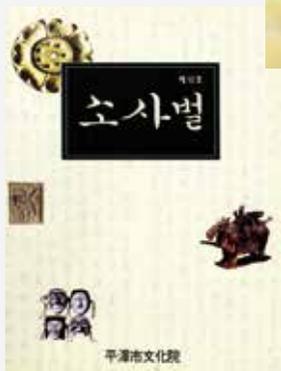
소사벌 제9호



소사벌 제12호



소사벌 제17호



소사벌 제1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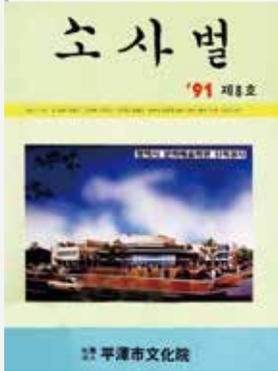
소사별 제3호



소사별 제23호



소사별 제15호



소사별 제8호



소사별 제22호



소사별 제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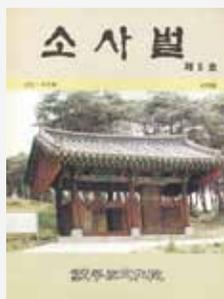


소사별 제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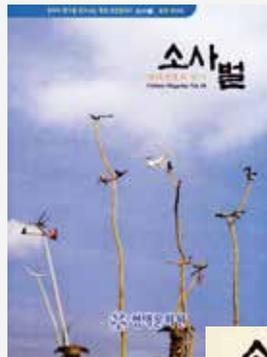
소사별

창간호부터 제40호까지

문화사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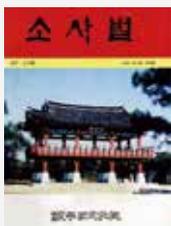
소사별 제5호



소사별 제1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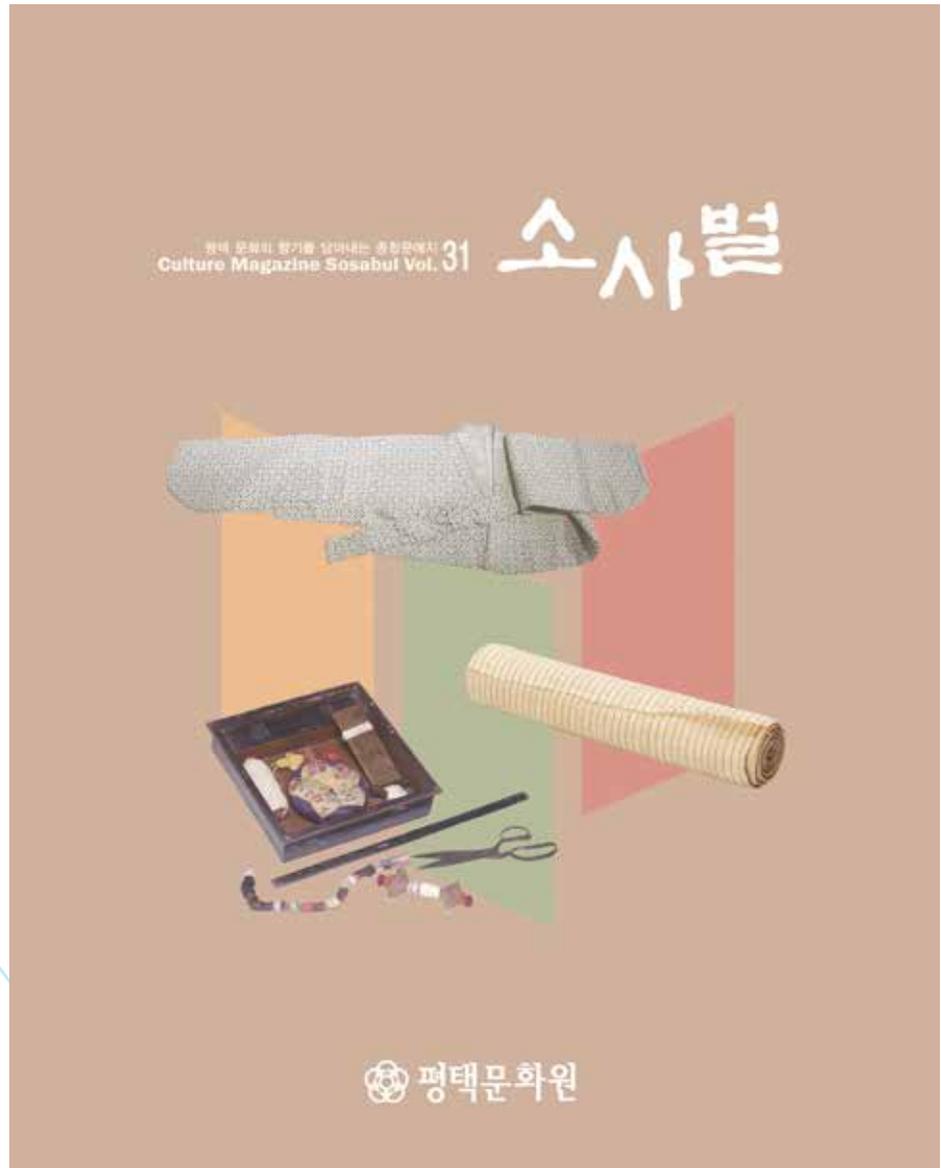
소사별 제27호



소사별 제4호



소사별 제7호



《소사별》 제 31호

평택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기관지이자 지역의 종합문화 예술지인 《소사별》은 1984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2023년 제40호까지 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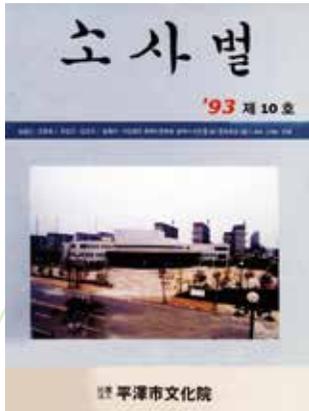
《소사별》은 그동안 평택문화원의 활동과 평택시 역사, 민속, 문화유산, 지역의 주요 문화적 이슈를 비롯해 지역 현안, 교육, 공공정책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발간하였다. 여기에서는 《소사별》의 창간호부터 제40호까지 발간 현황과 함께 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사벌》 발간 현황

평택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소사벌》은 1984년 12월 창간호를 발간한 뒤 2023년 제40호가 발간할 때까지 일정한 발간 주기를 유지하지는 못했다. 한동안 휴간기도 있었으며 시기별로 발간 주기도 다르다. 구체적 발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와 같이 《소사벌》은 7년간의 1차 휴간기(1997~2003)와 2년간의 2차 휴간기(2012~2013)를 거쳐 현재 제40호까지 발간되었으며, 휴간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연 1~2회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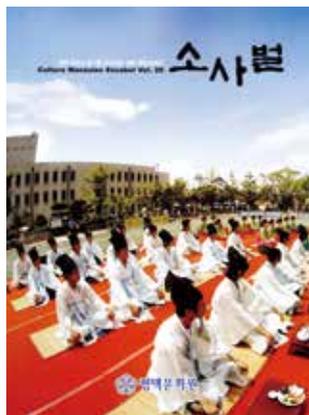
분량으로 살펴보면 창간호의 경우 20페이지로 발간하기 시작하여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는 약 100~120페이지로 10여 년간 유지하였고 제12호와 제13호는 분량이 늘어 약 170페이지로 발간하였다. 1차 휴간기 이후 복간한 제14호와 제15호는 약 170페이지로 발간하였으며, 제16호부터 제25호까지는 약 150~180페이지로 발간되었고 제26호와 2차 휴간기 이후 제32호까지 약 120페이지에서 약 100페이지로 차츰 줄다가 제33호부



《소사벌》 제10호



《소사벌》 제37호



《소사벌》 제20호



《소사벌》 제30호

연 번	내 용	발행 연도	비 고
1	소사벌 창간호 ~ 제13호	1984~1996	연 1회
2	1차 휴간기	1997~2003	
3	소사벌 제14호 ~ 제15호	2004~2005	연 1회
4	소사벌 제16호 ~ 제17호	2006	연 2회
5	소사벌 제18호	2007	연 1회
6	소사벌 제19호 ~ 제21호	2008	연 3회
7	소사벌 제22호 ~ 제25호	2009~2010	연 2회
8	소사벌 제26호	2011	연 1회
9	2차 휴간기	2012~2013	
10	소사벌 제27호 ~ 제32호	2014~2019	연 1회
11	소사벌 제33호 ~ 제40호	2020~2023	연 2회

터 현재까지는 100페이지를 유지하고 있다. 크기는 창간호부터 제15호까지는 257×188mm(4×6배판)로 발간하였고 제16호부터는 현재 크기인 222×275mm로 발간하여 지금에 이른다.

《소사별》의 시작 ‘창간호’

《소사별》 창간호는 1984년 12월에 표지 포함 20페이지로 발간하였다. 표지를 살펴보면 상단에 붉은 배경에 흰색 글씨로 제호 ‘소사별’이 있으며 평택군의 군민헌장탑을 표지사진으로 사용하였다. 뒤표지에는 당시 평택군의 국회의원인 이자현과 유치송이 사진과 함께 창간을 축하하고 있다.

《소사별》 창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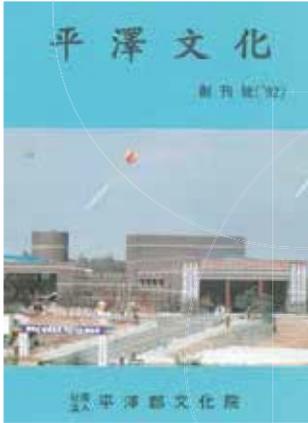
간행사에 따르면 제호는 기호지방 대표 곡창지대 평택의 상징인 ‘소사별’로 하였으며, 《소사별》 창간호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으로 제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민헌장과 평택애향가, 간행사, 군정 소식(군연혁, 아산호 관광지 현황, 평택군 역점 사업), 평택 교육의 실태와 장래, 평택 상공업 실태 및 전망, 숫자로 본 이 고장의 농·림·수산업, 문화재 소개, 평택과 평택농악, 각종 행사 소식, 고향찾기 운동의 제창, 광고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사별》의 변화

《소사별》은 40여 년의 시간 동안 문화원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였다. 《소사별》 창간호 ~ 제13호의 주요 내용은 군정을 비롯해 주요 기관의 동정과 시책, 교육, 경제, 치안, 문화, 역사, 민속, 인물, 문화유산, 행사 소식 등 평택지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원의 활동 모습을 담고 있다. 당시 《소사별》은 정부와 군의 시책을 홍보하는 관변적 내용과 함께 계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화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중요한 매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차 휴간기 이후 재간된 《소사별》 제14호 ~ 제40호는 ‘평택 문화의 향기를 담아내는 종합문예지’를 표방하며 발



《평택문화》 창간호



《송탄문화》 창간호

문화의 향기를 나누는 즐거움
Culture Magazine Sosabul Vol. 38

소사벌
2022

《소사벌》 제38호

간하였다. 지역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기획특집을 중심으로 문화, 역사, 민속, 인물, 문화유산, 문화행사, 화보 등 평택지역의 다양한 문화 소식과 문화원의 활동 모습이 주요 내용으로 지역문화에 특화된 문예지로 제작하고 있다. 편집에서도 풀컬러로 바뀌었으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사진과 이미지를 중요시하고 점차 한 주제에 할애하는 분량을 줄여 가볍고 쉽게 독자에게 다가가도록 하였다.

《소사벌》의 자매지

평택문화원은 시군분리와 통합의 과정에서 송탄문화원과 평택군문화원으로 분리되었고 다시 평택문화원으로 통합되었다. 이 과정에서 송탄문화원에서는 《송탄문화》와 평택군문화원에서는 《평택문화》를 발간하였다.

송탄문화원의 기관지인 《송탄문화》는 1985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1994년 제12집이 발간되었다. 대체로 연 1회 발간되었고 연 2회 발간된 해는 1985년에 창간호와 제2집, 1990년에 제7집과 제8집이다. 여기에는 시정의 시책, 교육, 문화, 역사, 민속, 인물, 문화유산, 건강, 취미, 행사 소식 등을 담고 있다.

평택군문화원의 기관지인 《평택문화》는 1992년 창간호와 1994년 제2집이 발간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의 시책, 교육, 문화, 역사, 민속, 인물, 문화유산, 행사 소식 등을 담고 있다. 1995년 3개 문화원의 통합 이후에는 《송탄문화》와 《평택문화》의 내용은 《소사벌》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었다. **소사벌**



평택의 정체성을 기록하는 문화플랫폼 《소사벌》

송은옥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연구팀 부장

끊임없이 발전해온 인류의 기록문화

인류역사는 인종간의 충돌과 문화의 교류, 새로운 형태의 끊임없는 분열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46억년 전 지구가 생겨났고 41억년 전 생명체가 등장했다. 문명사의 기록은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다. 각 문명과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보와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었고 이



통북동~평택역 거리 풍경(1952~3년)

러한 기록 형태는 문화, 기술, 사회적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예를 들어 문자체계, 비석과 모노락, 판화와 벽화, 원고와 서적, 피라미드 문서, 클레이 태블릿, 현대의 디지털 기록까지, 그 오랜 시공간 속에서 앞선 인류의 다양한 기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어떤 사고와 가치를 가지는 인류가 되었을지 궁금하다. 작은 단위로 보는

지역사 또한 다르지 않다. 내가 사는 지역의 자긍심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화적 정체성에서 나온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사별》을 통해 소개되는 다양한 연구와 기록은 평택 주민이 살고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는 물론 후대에게 전달할 풍성한 단초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작업이다. 또한 《소사별》 발간은 지역사가들의 연구와 성과를 보여주는 도구이며 지금의 생활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으로 지방문화원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자 지방문화원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평택문화원사(1971)

평택문화원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사별》

평택문화원은 1953년 설립, 올해 70주년을 맞이하였다. 경기지역 31개 지방문화원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길며 전국 지방문화원 중에서도 선도사례로서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 소개되곤 했다. 평택문화원은 지역사회와 긴 호흡을 함께 하면서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쳐왔으며 특히 평택학(사)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사업은 물론 지역민 수요에 발맞춘 프로그램을 기획·서비스하며 문화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여러사업 중에서도 평택학 연구와 기록화, 지역인물에 대한 연구는 단연 돋보인다. 평택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소사별》은 평택사의 연구와 개발 결과를 안정적으로 축적하는 것은 물론 깊이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어 의미와 역할이 크다. 어려운 여건에서 제40호까지 꾸준하게 《소사별》을 발간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자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소사별》의 성과는 미래의 평



2021 문화의 날 평택문화원 개원 68주년·법인설립 50주년 기념식

택문화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축적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문화》와 《소사별》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도 1988년 《우리문화》 창간호를 시작으로 지방문화원의 소식을 모아서 전하는 기관지로 발간해 오다가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은 월간지로서 국영문 잡지를 발행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다. 전문성과 깊이있는 주제를 통해 우리문화를 해외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영문웹진을 해외문화원 누리집에 링크하여 전세계에 서비스하게 됨으로써 한단

계 성장하는 해가 되었다. 《소사별》이 평택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의미있게 담는다면 연합회의 《우리문화》는 대한민국 문화 전반을 깊이 있는 시선으로 풀어내어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기록문화의 중요성과 원천콘텐츠의 축적과 문화력의 성장을 여는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역문화지

2014년 지역문화진흥기본법 제정과 함께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전통과 역사가 있는 지역,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다행히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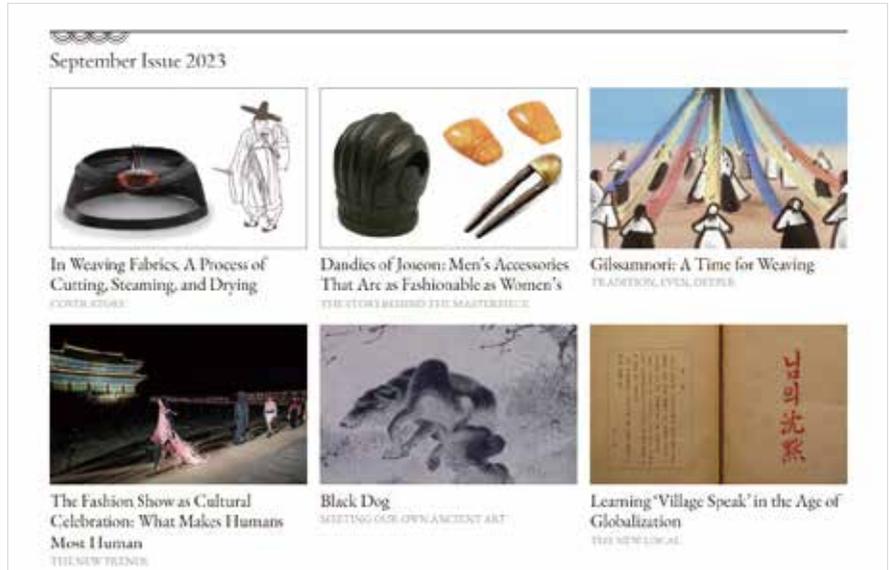


근 지역중심의 문화발신이 더욱 강조되면서 의식있는 자치단체장은 지역성과 고유성을 새롭게 조명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1년에 출간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 세계화에 대한 라다크의 교훈(원제 'Ancient Futures-Learning from Ladakh')이 여전히 현재진행중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헬레나는 해당도서를 통해 고유한 공동체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라다크의 개발이 국가에 미치는 다양한 문제의식을 이야기했다. 지금

지역문화의 정체성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에서 말했듯 지역이 만들어온 문화적 공동체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삶의 모든 양식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찾고, 현재의 문화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에 달려있다. 이처럼 《소사별》도 평택만이 가지는 고유한 문화를 발굴 및 연구하며 동시대의 문화를 함께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평택문화를 이끌어갈 《소사별》의 미래

현정부의 문화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다. 각종 정책과 지역문화생태계는 상상이상으로 빠르게 변화한다. 지방문화원 또한 이러한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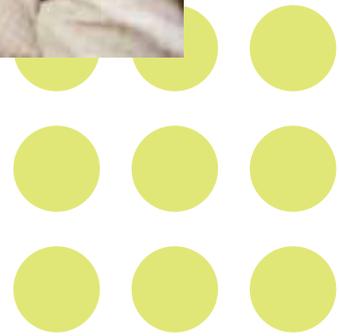
영문웹진_메인_9월호

화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택문화원의 70년의 역사만큼 문화원은 과거의 영광을 넘어 고정된 의식에서 벗어나 지역민과 다시 호흡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과거의 모든 것을 백지화 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자발적 세포분열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문화지는 더욱 심도깊게 지역의 현재를 읽어야 하며, 민감한 반응으로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소사별》는 평택의 문화생태계를 파악하고 문화원이 지역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소사별》 제40호 출간을 축하드리며 《소사별》을 통해 평택문화원이 지역의 문화생태계의 중심을 받치는 기둥으로 평가받고 평택문화를 이끌어가기 를 기대해본다. **소사별**



제1회 평택향토사료전시회(2011)

기억에 남는 《소사벌》 이야기



문화기획부

어느덧 평택의 문화, 예술, 역사 등의 이야기를 담은 소식지 《소사벌》이 발간한 지 오랜시간이 흘렀다. 제1호부터 제39호까지 우리나라와 평택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다. 이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평택소사벌민속단오제(2006)



《소사벌》 제3호 '세시풍속'

음력 1월 15일은 정월대보름이다. 정월대보름에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부럼, 귀밝이술, 오곡밥이 있다. 여기에 약밥도 포함이 된다. 약밥에 대한 유래는 우측과 같다. 그리고 설날은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는데 이를 세찬이라 했다. 설날 세찬 중에서 어느 집이나 만드는 흰 떡은 멥쌀을 가루 내어 찐 다음, 떡메로 두들겨 친 다음 손으로 길고 둥글게 만들어 식힌 다음 이를 칼로 썰어 국을 끓여먹었다. 이것이 바로 떡국이다. 떡국은 차례상에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다 먹는다. 이 떡국에는 꿩고기를 넣고 끓여야 제맛이 나지만 잡기가 어려워 닭을 잡아 썼다. 여기서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비롯되었다고 한다.

평소에 생각 없이 먹었던 약밥에 숨겨진 무서운 이야기가 있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떡국에서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3) 약 밥

정월 보름날은 약밥을 먹어야 좋다고 전한다.

이날 약밥을 먹는 유래는 488년 신라(新羅) 소지왕(昭知王) 10년에 천희 천천정(天泉亭)에 거동을 하였는데, 이때 까마귀가 나타나 “내가 날아가는 곳으로 따라 오세요” 하는 지라, 왕은 기사를 시켜 까마귀를 따라가게 하였다.

한참 남쪽으로 나르던 까마귀를 따라 지금의 경주 남산 동쪽 기슭에 있는 피촌(毘村)이란 곳까지 갔는데 바로 옆에 멧돼지 두 마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지라 구경을 하다가 까마귀의 행방을 잃어버려 그 길옆을 한참 찾고 있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편지 한 통을 주는데 편지의 길봉에 “이 편지를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요,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고 쓰여 있음으로 기사가 편지를 가져다 왕에게 바치니, 왕의 길봉에 쓰인 사연을 읽어 보고 “두 사람이 죽는 것 보다는 열어보지 않음으로 한 사람이 죽게 하는 편이 낫겠구나” 라고 말을 하는 지라 옆에 지켜보고 있던 일관이 아뢰기를 “두 사람이란 보통사람을 가리키고, 한 사람이란 바로 왕을 가리킵니다.” 하는 지라, 왕은 일관의 말대로 편지를 열어보게 하였더니, 그 안의 내용이 “거문고 감을 쏘아라”란 단 한 마디의 말밖에 없었다. 왕은 곧 궁궐에 들어가 거문고 감을 향하여 활을 쏘게 하였더니, 그 안에는 내전에서 불교의식을 맡아 행하는 중과 궁주(宮主)가 물레 간통을 하고 있는 지라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그 후 정월 보름날을 오기일(烏忌日)이라 하여 찰밥을 까마귀에게 제사하도록 풍습이 생겼다 한다.

찰밥을 좀더 맛있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찰쌀, 밤, 대추, 꿀, 잣 등을 섞어 찌서 만든 약밥이 되었고, 이 약밥은 검붉은 빛이 나고 단맛이 있으며 오래두고 먹어도 좋다.

《소사벌》 제3호 '세시풍속' 중 : 약밥

3) 군문동(軍門洞)

군문동은 조선조에 진위현 병파면에 속한 지역으로 군문포로 불렸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때 일시 진위군청을 두었던 곳이나 군청사를 신축하고 이전하였다.
1986년 1월 1일 평택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서부동 관할 지역으로 편입하여 서부동 17동이 되었다.

◦ 군문포(軍門浦)

군문포는 우리 나라 동학란 때 청국이 출병한데 대하여 일본이 친전 조약을 방패로 삼아 일본군이 출병하여 청군과 대치하여 1894년 풍도(豊島) 앞바다 및 아산(牙山)에서 충돌하였을 때 이 마을에 청국군이 주둔하여 관문(關門)을 이루었다 하여 군문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때 군문포에 청군이, 아산에 일본군이 포진하여 청일 전쟁에 시달리던 우리 조상들은 푸념하기를 “아산이 깨지나 평택이 무너지나” 하는 민담도 이때 생긴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浦는 해안의 수상 교통 지명으로 포구(浦口), 도진(澆津) 지명이며 津·浦·湖가 모두 이에 속한다. 또한 軍은 방어 지명으로서 關門·鎮·營地名에 속한다.】

◦ 셋개(間浦)

군문포와 황룡동 사이에 위치하였다고 셋개(間浦)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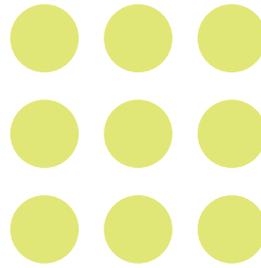
【셋개는 간포(間浦), 새(間), 개(浦), 훈치(訓備)한 것이다.】

《소사벌》 제9호 ‘평택시의 지명유래’ 중 : 군문동

《소사벌》 제9호 ‘평택시의 지명유래’

평택시는 조선조 진위현에 속한 지역이었다. 《진위현읍지》 건치 연혁에 의하면 본래 고구려 부산 현이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고 경덕왕 16년(757) 전국을 9주로 통합할 때, 수성군의 속현으로 진위현이라 부르게 되었다.

평택이라는 이름은 동국여지승람에 적힌 것을 보면 지금의 팽성읍이 옛날에 하팔현이었는데, 고려 때 지금의 평택현으로 고쳤다고 적혀 있다. 고종 42년(1905)에 경부선 철도가 개통될 무렵 지금의 평택역을 “평택”으로 역명을 지을 때 처음으로 “평택”이라는 명칭이 생겨난 것이다. 경부선 철도가 개통될 때만 해도 평택역 근처에 큰 취락이 없었으므로 큰 취락을 찾아 팽성의 옛이름인 평택현의 평택을 따서 지은 역명이다. 이 원고에는 옛 마을 이름에 대한 유래도 있다. 신기했던 지명유래는 군문동이다. 군문동은 조선조에 진위현 병파면에 속한 지역으로 군문포로 불렸는데, 그 이유는 위와 같다. 최근 평택은 고덕신도시 조성으로 새로운 공원, 학교 등이 생기고 있다. 평택시는 공원, 학교의 명칭 관련 의견을 평택문화원에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평택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자부심이 느껴져 이 원고가 기억에 남았다.



3) 청룡뿌리산

소재지 : 포승면 만호리

천년 묵은 이무기가 도를 닦고 청룡이 되려 하지만 천지신명은 이무기에게 어려운 수련과정을 겪게 한다. 그것은 인간에게 세번 도전하여 한번이라도 참다운 신의와 믿음을 얻어야 청룡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을 준 것이다. 이무기는 준수한 도령으로 변신하여 어여쁜 부인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지만 끝내 실패하고 부인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을 친다. 그래도 이무기는 실망하지 않고 이번에는 미모의 각시로 변신하여 방랑하는 개평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헌신하지만 개평꾼 역시 각시의 청을 묵살하여 버린다. 마지막으로 이무기는 부자가 되어 함께 장사할 동업자를 구하는데 마침 풀한포기도 밟지 않으며 옷속의 이도 잡는 노승을 만난다. 간절히 동업자가 되길 청하여 마침내는 동업자가 된다. 그러나 가장 믿을 만한 노스님도 재물앞에선 못믿을 인간이었다. 이처럼 세 번씩이나 인간에게서 비정함을 받은 이무기는 끝끝내 청룡이 되어 승천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한스럽게 죽어 가는데 그 이무기가 죽은 자리는 그의 형상대로 산의 모습이 되어 오늘까지 남아있는데 후세사람들은 이무기가 묻힌 산이름을 청룡뿌리라 부르고 있다.

《소사벌》 제13호 '내고장 설화'

설화란 한 민족 사이에 구전되어 오는 신화, 전설, 민담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소사벌》의 평택을 품은 이야기가 평택 설화를 각색, 재구성한 것이다. 아직 소개되지 않은 설화 중 생각나는 것은 포승면 만호리에 소재한 '청룡뿌리산'이다. 설화는 좌측과 같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이 느껴지는 설화였다. 청룡이 되고 싶었던 이무기의 간절함이, 죽어서 산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짝했다. 평택 설화는 대체로 새드엔딩이 많다. 안중읍 학현리에 있는 은행나무 설화도 그렇다. 젊은 스님이 욕정을 참지 못하고 과부의 몸에 손을 대고 순간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후 스님은 자신의 반성을 뉘우치기 위해 이 마을에 절을 지으며 고행을 겪지만, 득도하지 못하고 죽었다. 스님을 불쌍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죽은 자리에 은행나무를 심어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평택에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파되면 좋겠다.

《소사벌》 제13호 '내고장 설화' 중 : 청룡뿌리산



《소사벌》 제26호 '두레와 걸립의

조화로운 연희(演戲) 옷다리 평택농악(平澤農樂)

우리나라의 농악은 크게 평택농악이 속한 옷다리농악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 산악지역의 호남좌도농악, 전라도 평야지역의 호남우도농악, 경상도 지방의 영남농악, 태백산맥 너머의 영동농악 등으로 나누어진다. 평택농악은 두레풍물과 걸립풍물굿을 가장 잘 계승한 풍물로 여겨진다. 평택농악이란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한국전쟁 직후, 이승만 정부시절 대통령 생일을 기념해 열린 전국농악경연대회이다. 故최은창 선생은 농악패를 구성

해 '평택농악'이라는 이름으로 대회를 나갔다. 이 대회에서 1958년과 1959년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평택농악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택 하면 떠오르는 것이 쌀, 배, 평택항일 것이다. 평택농악은 198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1-나호 지정이 되고, 2014년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리고 평택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옷다리문화촌' 이름도 옷다리농악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렇듯 평택농악은 지역의 자랑거리로서 평택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택농악

《소사별》 제38호

‘일제가 금지한 노래책 《근화창가》’

경기도의 첫 번째 근대음악 유산으로 1921년 노영호가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정신을 담은 노래를 보급하고자 했지만, 조선총독부가 출판을 금지하고 압수 처분하면서 사라졌다. 이러한 《근화창가》는 민족음악학자인 故노동은 교수의 노력한 끝에 초판이 발굴되고, 2022년 4월 6일 경기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잊혀가는 것들이 많지만, 故노동은 교수처럼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한다면 오래도록 기억하지 않을까 싶다.

이 외에도 자세한 내용은 평택문화원 홈페이지, 교보문고에서도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소사별》은 계속되며 많은 관심과 구독 바란다. **소사별**



《근화창가》 표지



《근화창가》 악보집 '조선의 자람'

빛바랜 사진이야기 / 개인사 시리즈2 배움(초등학교)



청북공립보통학교 가사수업 1937년 / 청북공립보통학교(평택시 청북읍)

1926년 9월 13일 '청북공립보통학교'로 설립 인가받아 개교한 '청북초등학교'는 올해로 개교 97년을 맞은 평택시 서부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학교이다. 개교 당시 청북공립보통학교는 지금의 학제나 운영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학교가 운영됐다. 남녀 혼성학급이 아닌 남학생과 여학생 학급이 분리 운영됐으며, 배우는 교과목도 남녀 간 차이가 있었다.

사진에서처럼 여학생은 '가정 家庭'과 '가사 家事' 과목

이 있었으며, 남학생은 '농업 農業'과 '기술 技術', '실업 實業' 등의 과목을 별도로 배웠다. 사진 속 여학생들은 뜨개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학생들은 국어, 산수, 도덕, 자연과 같은 일반 교과 외에도 바느질, 뜨개질, 요리 실습과 같이 살림을 꾸려나가는 일과 관련된 수업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요리 실습 시간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장 좋아하는 시간으로 실습이 끝난 후 남녀 학생이 모두 모여 실습 결과물인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평택성동국민학교 가상 UN총회 1954년 / 평택성동국민학교(평택시 비전동)

평택성동초등학교는 올해로 개교 11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이다. 평택에서 가장 빠른 1899년 개교한 진위초등학교 다음으로 개교했다. 1905년 경부선 평택역 개통으로 진위군 행정의 중심축이 점차 지금의 남평택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평택성동국민학교는 초등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평택성동국민학교는 점차 학생수가 증가해 평택군 내에서 학생이 가장 많았고,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 상급 교육행정기관의 각종

시범학교를 도맡아 운영하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평택 최고 명문 초등학교라는 자긍심을 가졌다. 사진은 남학생들로만 구성된 평택성동국민학교 6학년 1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가상UN회의'를 개최하는 모습이다. 회의 주제는 '한국 통일문제'와 '또이취 통일문제'로 기록되어 있다. '또이취'는 당시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됐던 '독일'을 뜻한다. 사진에는 의장과 서기, 한국, 미국, 소련, 프랑스, 중화민국 등의 세계 각 나라 깃발이 보인다.



부용국민학교 가을운동회 마스게임 1956년 / 부용국민학교(평택시 팽성읍)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가 많이 사용되었다. 지금이야 잘 살고 잘 먹어서 국민 평균 신장도 매우 커졌고, 체격도 좋아져 오히려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체력이 허약한 어린이가 더 많았다.

사진은 6·25전쟁 직후인 1956년 부용국민학교 가을운동회 때 남학생들의 ‘4단 피라미드 쌓기’ 모습이다. 당시 학생들은 요즘 어린이보다 체격은 작았지만 ‘3단 피라미드’는

기본이고 4단, 5단까지 ‘인간 탑 쌓기’를 진행했다. 한두 달 연습을 해 가을 대운동회를 열면 온 동네 주민이 국민학교에 모여 잔치를 벌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십 년 전 ‘피라미드 쌓기’가 운동회에서 사라졌는데, 일본은 2010년도 UN 아동권리협약위원회에서 짝체조가 “아동을 상해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인권단체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후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다.



내기국민학교 행담도 봄소풍 1958년 / 내기국민학교(평택시 포승읍)

과거 초등학교에서 매년 연례행사로 개최하는 3대 행사로 '소풍', '운동회', '학예회'가 있었다. 지금은 행사의 명칭이나 형식, 프로그램이 크게 바뀌었으며, 참여 대상도 지역 사회에서 학교 내부 행사로 많이 축소되었다.

사진은 1958년 내기국민학교 학생들이 행담도로 봄소풍을 떠나기 위해 배에 승선하고 있는 모습이다. 행담도는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로 변모했지만 과거에

는 영웅바위와 함께 과거 포승, 현덕, 청북, 오성 등 평택시 서부지역 주민의 여름철 단골 휴양지로 유명했다.

사진 속 학생은 고학년 한 학급 60여 명 안팎이 승선한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이 배에 가득하다. '구명조끼'나 '구명튜브' 등 안전 장비도 없이 소풍 배에 탑승한 내기국민학교 어린이들의 표정은 소풍 가는 설렘에 가득 차 있는 듯하다. **소사별**

글 · 사진 박성복
Pyeongtaek Photobank/Memory in Pyeongtaek 대표

평택문화를 반추하다

-대한뉴스 속 평택-

황수근 문화사업부 학예연구사



한국정책방송원에서는 e영상역사관(www.ehistory.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대한뉴스를 비롯해 다양한 영상자료와 사진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대한뉴스는 극장상영용으로 1948년 11월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였고 1994년 12월 31일 제2040호를 끝으로 종영되었다.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전 국민이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오락 영상물이 영화이던 시절에 대한뉴스는 영화를 보러온 국민에게 국내외 뉴스를 전해주기도 했고, 정부의 방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국민을 단속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평택과 관련하여 보도된 대한뉴스는 수십여 건이며 여기에서는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느질 한평생 학교를 세우다

대한뉴스 제721호(제작일 : 1969년 4월 11일)

뉴스 내용

- 박삼동 여사, 45년간 샅바느질로 모은 돈으로 경기도 평택군에 태삼재건중학교를 설립.
- 300여 명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복 등 일체 무료.
- 학생들에게 100원이 예치된 예금통장을 마련해줌.

*태삼재건중학교는?

1968년 8월 1일 서울 살던 박삼동 여사가 홀몸으로 샅바느질로 근검절약해 모은 재산으로 당시 평택군 오성면 학현리에 '태삼청소년학교'를 건립했다. 당시 학현리의 대지 23,140평 위에 교실 5개와 창고, 숙직실 및 기타 부속건물을 지어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당시 문화공보부는 뉴스를, 각 신문사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평택군수는 감사장을 수여했다.

당시 '류재근'은 교장 대행을 했고 5명의 교사가 봉사하면서 청소년을 가르쳤다. 당시 95% 이상이 정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자 노인대학으로 변경 운영하려다가 1973년 8월 3일 박 여사가 갑자기 사망해 8월 7일 학교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학교 부지 내에 안장했다. 류재근 교장 직무대행도 병사해 학교 기능이 중단됐다.



새마을을 위한 노래잔치

대한뉴스 제903호(제작일 : 1972년 10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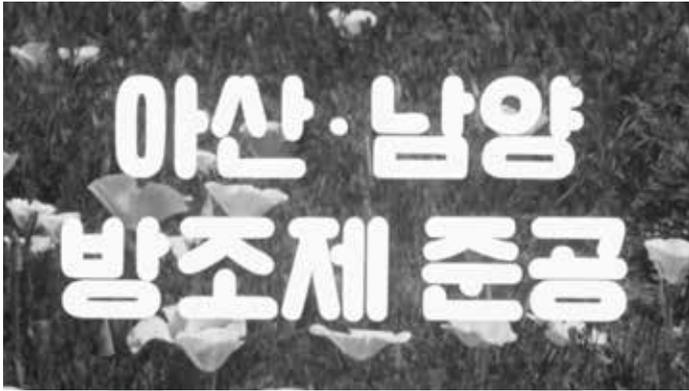
뉴스 내용

- 경기도 평택에서 열림.
- 중앙방송국 주최 구봉서, 광규석, 이미자씨 노래.
- 합창단의 "잘 살아보세" 노래 및 농악.

*평택의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은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 의식개혁을 주요 과제로 삼고 1970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개발 운동이다. 평택지역에서 새마을운동은 활발하게 퍼져나가 칠원리, 서탄면 사리, 현덕면 신왕리 등은 대표적인 새마을운동의 성공 사례로 꼽는다. 특히 칠원리 새마을운동은 칠원리 태생으로 당시 국민학생이었던 김기호(1934년생)와 이충웅(1936년생) 등 50여 명은 1948년 칠원리 소년단을 만들어 추수 끝난 들판에서 보리이삭줍기로 마을의 관혼상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마련했으며 성인 야학을 만들어 문맹 퇴치에도 나섰다. 1964년 청년단으로 명칭을 바꾸어 주변 야산을 녹화하고 푸른 산림으로 만들었다.

1971년 전국적으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 일어나면서 칠원마을은 김기호 지도자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산림녹화, 우물 개수, 마을 공동 경작지 사업, 약초 재배, 특용작물재배, 농로 개설 사업, 낙농 사업, 지붕 및 불량주택 개량 등을 했다. 1976년 김기호 지도자가 새마을 협동장을 받았으며, 칠원리 마을은 우수마을로 지정돼 표창을 받았고 외국인 홍보 마을이 됐다.



아산, 남양 방조제 준공

대한뉴스 제984호(제작일 : 1974년 05월 25일)

뉴스 내용

- 3년의 공사 끝에 아산만과 남양만 방조제가 준공됨.
- 공중촬영, 방조제(아산만 하구를 잘라 평택군과 아산군을 육지로 연결 2,564m).
- 2,064m의 남양 방조제는 남양만 하구를 막아 평택군과 화성군을 연결해서 평택지구 21,700헥타르의 농경지를 수리안전 지역으로 바꾸어 줌.
- 박정희 대통령의 유시 및 방조제 시찰.
- 방조제 주변을 살펴보는 박정희 대통령.
- 공중에서 바라본 아산만 방조제.

*아산·남양 방조제는?

아산·남양 방조제 축조와 담수호 사업은 안성천과 발안천 하구 주변 18,500ha의 천수답과 구릉지, 아산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지역은 서해안의 해류가 역류하는 안성천과 발안천 하구를 끼고 있어 조금만 가물어도 상류 지역의 농업용수가 고갈되고 짠 바닷물이 역류해 한해와 수해, 염해가 겹치는 악순환에 시달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성천 하구에 아산만방조제, 발안천 하구에 남양 방조제를 각각 축조하기로 했다. 해수 유입을 차단하고 바다였던 곳에 평택호와 남양호 두 담수호를 조성하는 한편 이 물을 관개할 용수시설과 지구 내의 경지정리, 개답, 간척 등을 포함한 대단위 종합개발 사업이었다. **소사별**

여기는 평택이다

최치선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평택시 3개 권역의 전형적인 도심풍경과
확장되어가는 신도시 모습을 담았다. **소사별**





송탄 부락산 자락에서 본 송탄출장소 일대 풍경. 오른쪽 멀리 신장, 지산, 송북동이 보이고 가운데 서정동과 왼쪽으로 이충동과 충훈탑이 있는 등구재와 점촌, 서정리. 멀리 고덕신도시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보인다.(2021)



남평택 가운데 통복천과 1번 국도를 중심으로 본 남평택 전경. 오른쪽으로 평택마이스터고, 위로 성동초등학교와 평택역이 보이고, 가운데 멀리 배다리저수지와 죽백, 용이, 소사. 왼쪽으로 서재지구와 법원, 모산골저수지와 영신, 동식지구가 보인다.(2023)



청북신도시 | 무성산 자락아래 펼쳐진 청북신도시 전경(2022)

안중 | 평택 서부지역 안중읍을 중심으로 본 전경.
현화지구 왼쪽으로 안중고와 안중출장소.
오른쪽 송담지구 뒤로 안중역 건설현장이 보이고 안중시까지
멀리 안성천과 캠프 험프리스가 보인다. (2020)





고덕신도시 | 평택의 문화, 행정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고덕신도시 전경(2023)



시대의 그림자에 희망을 물들이는 글로벌리즘 아티스트

배춘호 조형예술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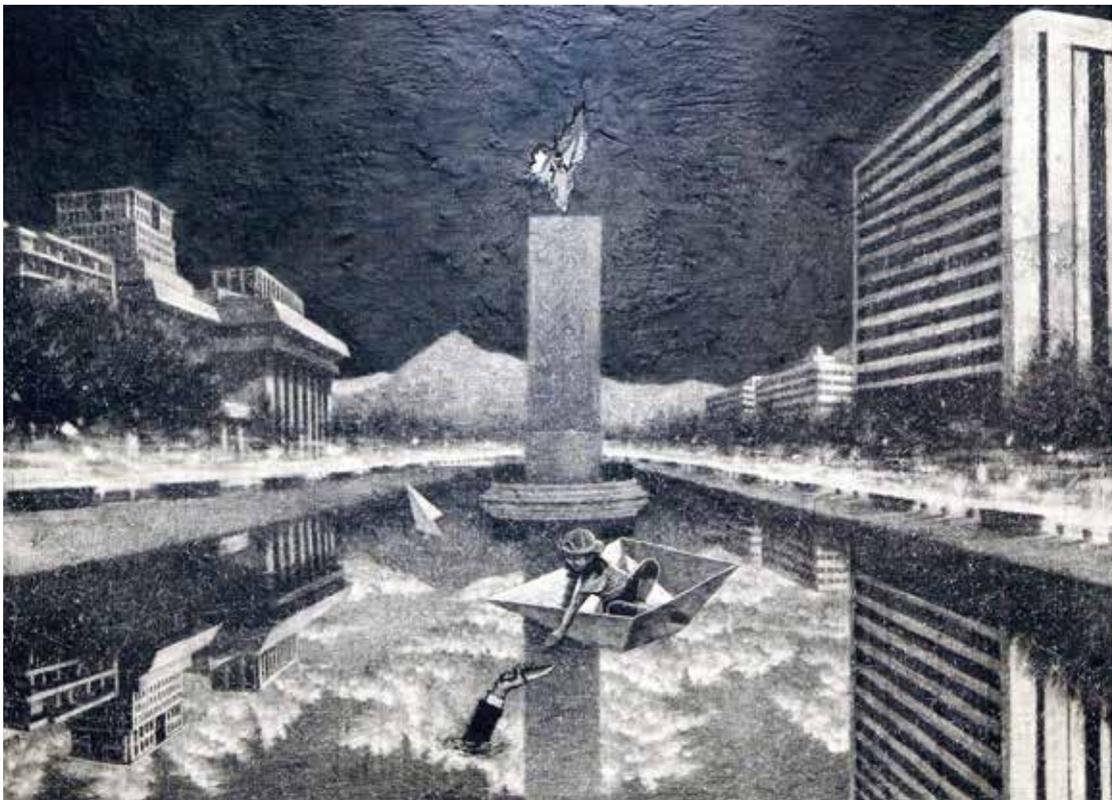
아주 특별한 인연이 되어주신 한 독립큐레이터님은 나를 '글로벌리즘 아티스트'라고 한다. 평택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하지만 특정지역의 현상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닌 한국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정세를 가로지르는 불편한 담론에 대한 현실 참여적 예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찾고 만들어 가야할 희망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나는 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조형성을 연구하며 작품을 통해 시대의 희뿌연 그림자에 희망을 물들이며 나가는 힘의 합류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한다.

2017년 봄, 설레이는 마음으로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를 감싸고 흐르는 천(川)으로 그 해 첫 낚시를 즐기기 위해 가는 중,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황구지리 마을에 철조망이 흉하게 둘러쳐져 있는 것이 의아스러워 잠시 차를 멈춰 세웠다. 오랜 시간의 정취가 아름다워 봄, 가을로 사진을 찍으러 가곤 하던 시골 마을이 어느 순간 미군부대 수용부지로 철거 예정지역이 되어 법률적 근거를 내세운 출입금지 푯말이 나를 가로막아 서고 있었다.

주한미군이 평택 이전과 관련하여 2007~2009

년쯤 혼란스러웠던 평택 대추리 마을에 전국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모여들어 평화예술운동을 펼쳤던 때가 있었다. 그 당시 정치와 민중이 부딪히면서 많은 아픔을 낳고 언론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다루어졌는데, 이 마을(황구지리)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주 조용히 사라지는 마을이 되어버린 것이 아쉬움을 넘어 아픈 기분이 들었

다. 아시아의 작은 반도에 그것도 반으로 허리가 나뉘어져 강대국의 헤게모니를 수용하고 살아가야 하는 한 국가의 '나'란 존재의 정체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 평택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은 작품은 그저 소소한 풍경화들이었을 뿐, 시대정신의 날은 매우 무뎠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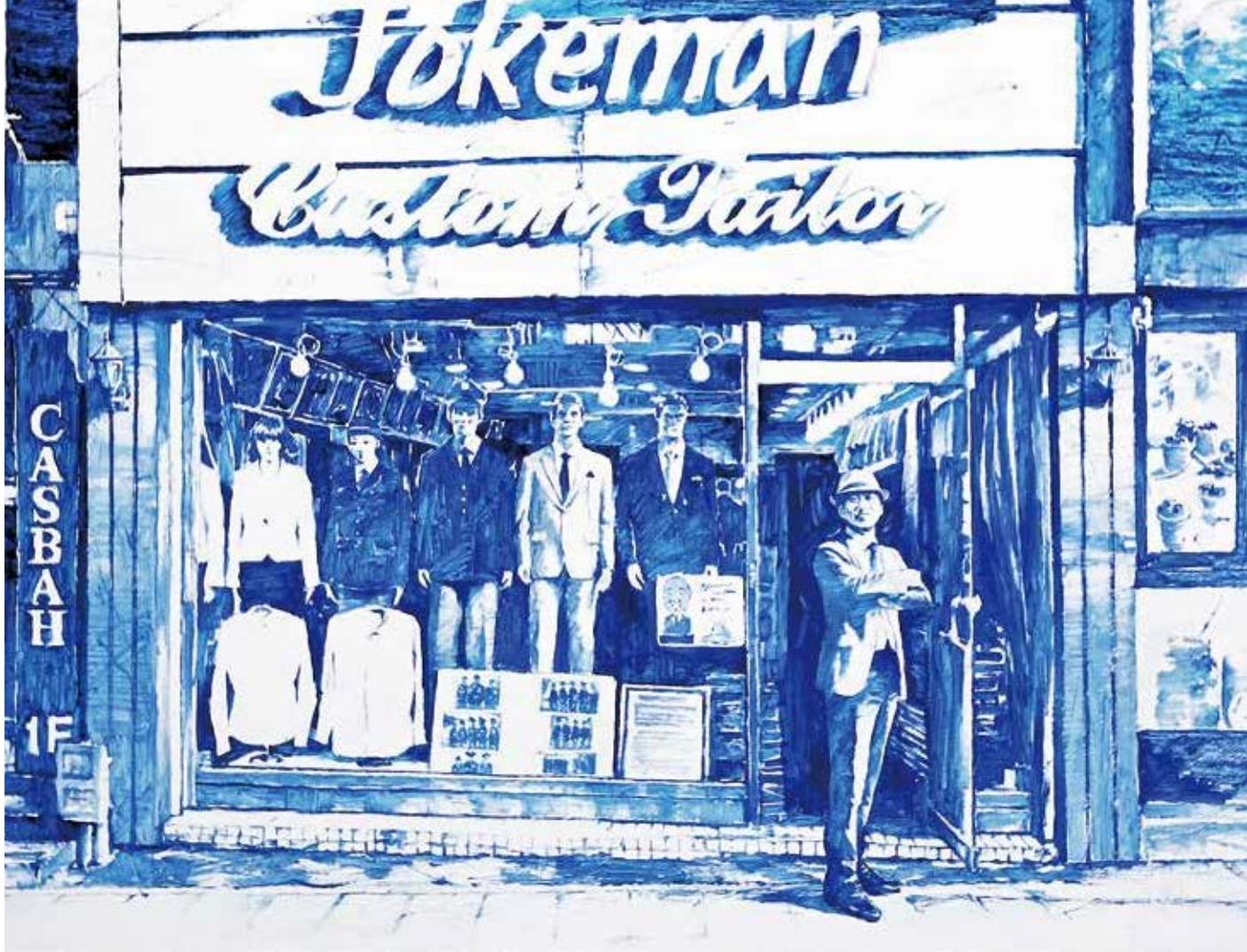
실제로부터 실제에게 75×105cm 목재파편, 석회, 흑연, 미디어 2019

철거가 진행되는 황구지리 마을에서 부서진 건물들의 잔해들 중 목재파편을 모아서 회칠을 한 후 화려한 색과 기교를 버리고 시대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시각을 회색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연필과 흑연가루는 시대의 그림자를 기호화된 형(形)으로 담아내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였고 시대의 증거물(파편)에 진정성을 담아내고 싶었다.

산탄처럼 공중에 흩어지듯 설치되어 전시되는 작품명-‘fragments’ 시리즈와 총 8파트로 구성된 영상작품 ‘수직과 수평의 경계에서’는 위성지도로 보면 한참을 확대해야 보일 듯 말 듯 한 평택의 아주 작은 마을에 일어난 일로부터 비롯하는 시대의 아젠다(agenda)이다. 또한 상징화한 서사, 응시하는 현실로써의 작품을 통해 평화, 화해, 치유와 사회변혁의 담론에 대한 의미 있는 소통의 지점을 형상화 하고자 한 작품이다.



fragments 가변크기 목재파편, 석회, 흑연 2017~2019



배춘호 푸른시선-hello jokeman 75×105cm oil on canvas 2021

2021년부터는 캔버스에 푸른색-블루로 미군부대 앞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스토리텔링이 담긴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다. 블루가 가지는 양가적 상징성 중에서 우울과 희망에 관점을 고정시키고 그들과 평범한 이웃처럼 지내며 불안의 시대를 안고 극복하며 환한 웃음과 인정을 쏟아내는 그들을 푸른 시선-희망으로 담아냈다. 그 시간을 함께하며 작품과 함께한 한국인과, 다국적 외국인, 군인은 예술작품을 통해 이념과 편견을 내려놓은 시간을 공유 할 수 있었고 꾸밈없는 희망의 이야기를 관객에게 들려 줄 수 있었다. **소사별**

어무름이 이로움으로 변화하는 공간

사 리 당 寺利堂

최희련 문화기획부 주임



사리당



사리당으로 변하기 전 고택

평택에는 한옥을 이축한 카페 감우당, 주택을 개조한 카페 무소, 67년의 깊은 역사를 지닌 카페 사리당이 있다. 이 중 사리당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택에서의 가족사진(할머니, 아버지의 형제들)



고택 앞마당에서의 가족사진(할머니와 누나)

서탄면 사리에 위치한 고택

사리당은 김준식 사장(20대)의 고조부 때부터 5대가 걸쳐 살던 역사가 깊은 고택이다. 1956년 고조부께서는 주변에서 목재를 구하기 어려워 수원에서 나무를 싣고 와 이 집을 지으셨다. 이 고택의 규모는 상당히 큰 편이며, 마당에는 우물이 있다. 그리고 건물을 짓고 천장에 건물의 이력과 축문을 적는 상량문도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고조부님께서 천석꾼(곡식 천 석을 거두어들일 만큼 재산이 많던 부자를 비유하는 말)이셨다고 한다. 이처럼 고택은 가족들의 추억이 담겼다. 마당에서 키질하던 할머니의 뒷모습, 밤하늘에 달을 보며 낄씨 이야기 나누던 순간, 가족들이 텃밭의 꺾임을 따서 10장씩 묶었던 정겨운 모습들이 가슴에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한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사리당

고택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1년 동안 돌보는 사람이 없어 낡고 허물어져 갔다. 가족들은 의미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다. 하나는 가족들은 많은 사람과 이 공간을 나눔으로써 공간에 대한 기억을 다른 사람과도 공유하고 싶어했다. 또 하나는 그는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던 터라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하고 싶었다.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은 바로 카페였다. 중장비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고, 마을주민들도 고택 내부를 철거하고 공사하는 작업을 도왔다.



사리당으로 변신 중인 내부



사리당으로 변신 중인 외부



고택을 직접 공사하는 사장 김준식과 아버지 김태동

아버지께서 30여년 동안 관리하신 소나무는 정원으로 조성됐고, 할머니의 유품인 장식장은 컵과 휴지를 놓는 선반이 되었다. 그리고 바람과 추위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주던 창호 문은 처마 밑에 의자로 재탄생되었다. 이렇게 카페는 고택의 흔적들로 채워졌다. 드디어 사리당은 가족들이 과거를 추억하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추억을 만드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사리당에 오랜 시간 뿌리 내린 소나무



할머니의 유품인 장식장



창호문으로 만든 의자



부모님께서 직접 만든 디저트(수제양갱 및 약과, 주약)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사리당

현재 사리당은 가족, 마을, 지역과 상생하고 있다. 부모님께서서는 카페의 디저트를 맡고 계신다. 쌀젤라토는 아버지께서 재배하신 쌀을 활용하고 있으며, 양갱과 약과는 어머니께서 손수 만드신다. 그리고 평택 농가들과 출하 계약을 맺고, 농산물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7월 초에는 딸기 농사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 농부와 협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변 농가의 과일



사리당 식구들과 할머니 ©그림/김가람 평택시 인턴



을 사용하여 손님들에게 평택의 농산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리당은 마을주민과 함께 일하고 있다. 사리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부자 어르신은 환경미화를 담당하고, 김승면 어르신은 주차관리를 맡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온 윤선민 로스터, 이병국·김세은·김동현 바리스타가 사리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사리당을 운영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몹시 힘들었지만, 이들과 함

께였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한다.

머무름이 이로움으로 변화하는 공간. 사리당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그와 인터뷰하며 고택에서의 추억, 이토록 소중한 공간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 지역과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꼈다. 이러한 영향들을 소식지에 녹여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이 또한 이로움이 아닐까. **소사별**

경기도이야기 - 용인편

정몽주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 · 용인학연구소장

정몽주와 정도전의 엇갈린 운명

조선왕조 건국을 반대하다 죽임을 당한 정몽주(1337-1392)와 조선왕조 건국을 주도한 조선왕조의 설계자 정도전(1342-1398)에 대한 조선왕조의 기억은 정반대이다. 조선시대에 정몽주는 절의를 지킨 인물이자 동방 이학의 시조로 높이 평가되었으나, 정도전은 역적이 되어 조선왕조의 역사에서 지워졌다. 이러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왜 일어났는가.

정몽주와 정도전은 친구였다. 이들은 붕괴하는 고려 왕조 개혁을 위해 함께하였으나 개혁의 방향은 달랐다. 정몽주는 고려 왕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1392년 조선왕조 건국을 주도하던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정도전은 고려 왕조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새로운 왕조

인 조선왕조를 개창하는 역성혁명의 길로 나아갔다. 정도전은 조선왕조 건국을 기획하고 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의 국가 체계를 구상하고 정착시킨 조선왕조의 설계자이다. 새로운 도읍지인 한양 도성도 그가 설계하였다.

이러한 사실만 두고 볼 때 조선시대 들어 정몽주는 잊힌 존재가 되고 정도전은 개국공신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나, 역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정몽주는 개국에 반대하였지만, 정도전은 이방원의 권력 장악에 맞선 인물이었기에 이방원으로서의 정도전에게 더 큰 적대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1398년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 그의 권력 장악에 장애가 되는 정도전을 죽인 것이다. 1400년 이방원은 왕이 되었고 그가 태종이다.

정몽주와 정도전에 대한 조선왕조 기억의 큰 방향은 태



종에 의해 이루어졌다. 태종은 조선왕조 개국에 반대한 정몽주를 영의정으로 추증하고 문충(文忠)이라 시호를 내리고, 조선왕조 건국에 공헌한 정도전을 조선왕조의 역적으로 규정지었다. 조선왕조 개국에 반대한 정몽주가 조선왕조에서 충신이라 평가받고 조선왕조를 건국한 정도전은 조선왕조의 역적이 된 것이다. 태종 이후 정도전은 조선왕조 역사에서 사라졌다.

정도전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흥선대원군 때이다. 흥선대원군이 조선왕조 건국에 이바지한 정도전의 업적을 인정해준 것이다. 이때까지 정도전의 이름에는 역적이라는 불명예의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



정도전 초상화

정도전 초상화는 정몽주 초상화와 달리 전해지는 것이 없다. 이 초상화는 후대에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린 그림이다.



정몽주 초상화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된 초상화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정몽주 초상화 원본은 정몽주가 고려말 1390년 공양왕을 추대한 공으로 좌명공신으로 추대되었을 때 그려진 '좌명공신본'이다. '좌명공신본'은 전하지 않고 있으나, '좌명공신본'을 보고 다시 그린 초상화가 국립중앙박물관, 용인 포은선생영당,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학교 박물관등에 소장되어 있다. 정몽주 초상화는 동일한 원본을 보고 옮겨 그린 것이기에 그림의 형상은 똑같다.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된 이 초상화도 1555년 '좌명공신본'을 보고 옮겨 그린 것으로, 그동안 영일 정씨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다가 2006년 경기도박물관에 기증된 것이다. 전해지는 정몽주 초상화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조선왕조 개창에 반대한 정몽주가

조선의 충신이 되었을까?

정몽주는 조선왕조 건국을 반대하였기에, 조선왕조 개국 직후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태종대에 영의정으로 추증되고, 문충(文忠)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정몽주는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으나 이방원에 의해 전설이 된 것이다. 1432년 세종이 명하여 편찬된 『삼강행실도』의 「충신전」에 정몽주가 수록되었다. 이제 정몽주는 조선왕조의 충신이 된 것이다. 문종 때는 승의전에 배향되었다.

조선왕조는 조선왕조의 개창에 반대한 정몽주를 왜 충신으로 만들었을까? 조선왕조로서는 새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정몽주 같은 충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조선 전기 사람들은 포은 정몽주의 문묘 종사를 숙원으로 여겼다. 공자의 사당에 배향되는 것은 유림의 최고의 영예였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선 전기 사림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은 종종 때 조광조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몽주-길재-김종직-김굉필-조광조-이언적-이황으로 이어지는 조선 성리학의 도통론이 완성되면서 정몽주는 맨 앞자리를 차지하여 동방 성리학의 조종으로 자리 매김되었던 것이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본향인 성균관에 가면 조선 문묘 배향 18인이 모셔져 있다. 정몽주는 신라시대 설총과 최치원, 고려시대 안향, 조선시대 조광조와 퇴계 이황, 율곡 이이 등과 함께 모셔져 있다. 정몽주는 그가 건국을 반대한 조선시대에 성리학의 도통을 잇는 인물로 평가되어 모셔져 있는 것이다. 물론 정도전은 성균관에 배향되어 있지 않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포은 정몽주를 동방 이학의 시조로 받들면서 정몽주로부터 배우면서 조선왕조 성리학 사회를 만들어 나갔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느닷없는 변영과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 대한 재평가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는 느닷없는 변영을 이루고 있다. 한국은 2019년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를 지칭하는 30-50클럽에 가입하였다.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 중 30-50클럽에 가입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21세기 한국 사회의 현재를 만든 한국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산업화, 민주화와 그 뒤를 이은 국제화,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 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해방 이후 변영이 식민지 이전 시기인 조선시대와 단절되어 이루어진 것인가?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조선시대 중앙집권 국가로 안정된 통일 국가를 경영한 경험, 교육과 지식을 강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작동한 지식 국가의 경험이 없었다면 21세기 한국 사회는 없었을 것이다.

21세기에 정몽주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여기서 21세기 한국 사회의 변영을 이룩한 역사적 기원으로 조선시대 유교 국가를 주목한다. 그리고 조선 사회를 성리학 사회로 만드는데 이바지한 정몽주를 떠올린다. 정몽주를 '충절의 표상'으로만 기억할 때 훌륭한 역사적 인물로 자리매김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21세기 한국 사회가



정몽주 선생 묘

경기도 용인시 모현읍에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정몽주가 순절한 후 개성에 묘를 썼다가, 조선왕조 태종 때 그의 고향인 경상북도 영천으로 이장할 때, 용인 풍덕천에 이르자 이장 행렬 앞에 있던 명정이 바람에 날려 지금의 묘소 자리에 떨어지고 상여가 움직이지 않아 이곳에 묘를 썼다고 한다.

상징적인 인물로 받아들여지는데는 한계가 있다. 충절이 21세기 한국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포은 정몽주를 지역의 역사적 인물로 기억하는 곳은 여럿 있다. 포은 정몽주 묘소가 있는 경기도 용인은 매년 포은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용인 사람들은 포은 정몽주를 용인의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로 기억하고 있다. 경북 영천은 포은 정몽주가 출생한 곳이다. 정몽주의 생가가 있고, 정몽주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의 보통 사람들이 정몽주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포은 정몽주를 21세기가 기억하는 인물, 그리고 기념하는 역사적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정몽주를 어떻게 재해석해야 할까. 정확한 해답을 구하는 일은 정확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그 질문은 다음 두 가지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몽주를 고려시대 충절의 인물로만 기억할지? 아니면 21세기 한국 사회 형성의 기초를 이룩한 조선시대 유교, 성리학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한 역사적 인물로 기억할지? 그 해답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은가?

후자의 질문을 받아들인다면 다음의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유교, 성리학이 21세기 한국 사회에 남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유교를 21세기 문화자원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몽주의 사상과 생애를 재평가해서 새로운 정몽주 역사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긴 여정을 떠날 때가 되었다. **소사벌**

평택시청년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임성은 평택시청년지원센터 매니저



평택시청년지원센터는?

청년의 도시, 평택

19세~39세 청년을 위한 곳으로, 청년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간을 지원하는 곳

청년들이 맘껏 쉬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

청년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상담, 취미, 문화, 배움활동)을 지원합니다.

When (언제)?

2021년 9월에 개소하였습니다.

'청춘에 쉽, 표 더하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필두로 이곳에 오는 청년들이 바쁜 현실 속 한 박자 쉬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간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Where (어디서)?

평택역 맞은편 명동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 여관건물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하여(지하 1층, 지상 3층, 옥상) 청년들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소개

공유부엌



분 나 - 공유부엌, 다목적실
(대관신청 후 이용)

휴 - 옥상공원, 포토존

R

공유오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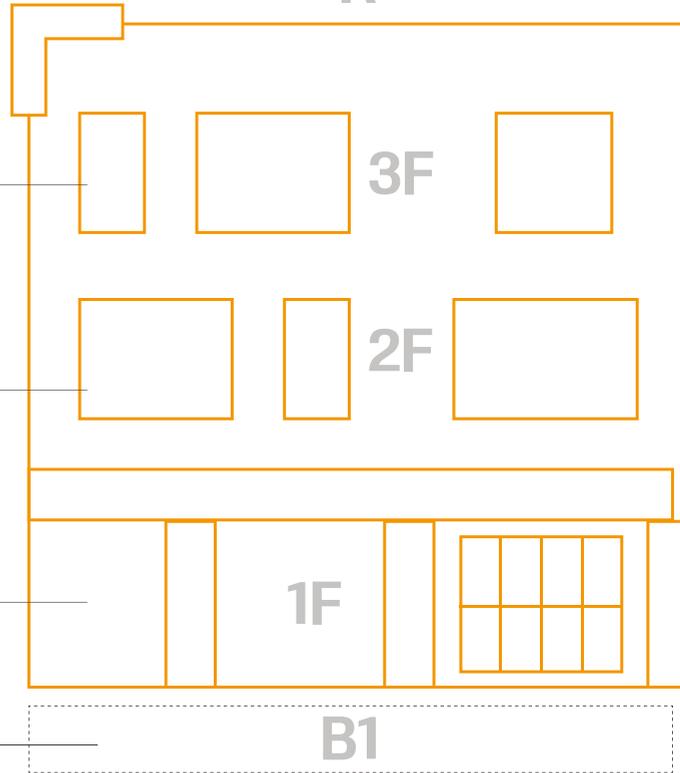
도 - 상담실, 1인스터디룸, 그룹스터디룸,
교육실, 공유오피스(대관신청 후 이용)

습 - 만남 - 커뮤니티공간, 셀프카페, 포토존
(시민 누구나 사용 가능)

밴드연습실



작 - 펼침 - 댄스연습실, 콘텐츠제작실, 밴드연습실,
개인연습실(대관신청 후 이용)



why (왜)?

현재 청년들은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뜻에서 청년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청바지토크

what (무엇을)?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담프로그램은 청년지원센터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마음이 아프고 기댈 곳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1:1 상담, 집단상담 등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음스테이'는 6회기 전문심리상담으로 다회기 상담을 제공합니다. '마음미러링'은 심리검사에 대한 1회기 해석전문상담, '마음편의점'은 사회성 강화, 자기이해, 자아존중감 고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스테이 상담사(오리엔테이션)

문화조성 프로그램은 각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공간클래스, SPOT프로그램, 청춘 문화의 날 '썸데이'는 평택에서 마주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강사를 섭외하여 모든 강의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아서 당일에 마감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꼭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ON봄(워크숍)



썸표, 플러스+(청년동아리지원사업)

기반조성 프로그램은

센터 내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 조직을 지원합니다. 청년동아리지원사업 '쉽표, 플러스+'는 청년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하고, 4개월간 1,000,000원이라는 지원금을 줍니다. 현재 5기가 모집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년기자단 '이음'은 청년 정책 및 평택의 다양한 소식을 알리는 기사를 작성하고, 청년운영위원회 '너울'은 정책제안 및 센터 내 조직들을 네트워킹하여 한곳에 모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공감토론단 'ON봄'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토론 및 자원봉사, 센터 내 프로그램 제안 등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분명한 성격을 가지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지향점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프로그램 안에 녹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장점은 만족도 조사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저희는 늘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그들의 목소리를 담은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멈추지 않습니다. 힘든 오늘 하루에 힐링으로 마무리되는 곳이 이곳. 청년지원센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년간 청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기획하면서 느낀 것은 청년사업은 기존의 센터와 기관에서 접근

한 방식 이외의 다양하고 센시티브한 방식들이 견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바쁘고, 할 것이 많은 시기가 청년 시기이기도 하고 각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청년들을 이곳에 잠시 머물게 하려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답습하는 기획은 그들에게는 매력 없었다는 것을 무엇보다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이 기관과 이 공간이 정말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 그리고 이곳에 오면 무언가를 얻어가고 배워가는 것이 있다는 이미지가 쌓여야 청년센터가 청년들로 늘 활기를 차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문화를 보급하고, 쉽고 힐링이 있는 곳이 이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스사별**

찾아가는 우리마을 역사교실

김해규 평택인문연구소장

평성읍 '평성읍객사'-김해규의 역사토크





오성면 '공간미학' 현장

‘평생학습 교육도 마을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요. 농촌지역 주민들은 죽을 때까지 평생학습센터 근처에
도 가보지 못하잖아요’

몇 년 전 시청 앞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평생학습센터 이
정은 선생께 특하고 던졌다. 옆에서 함께 식사하던 최치선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도 한마디 거들었다.
당시의 분위기는 사명감을 갖고 금세 농촌 마을로 달려갈
것 같았지만 그 뒤의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몇 달 뒤에는
이정은 선생까지 화성시로 전입하면서 나와 최치선 위원의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해져 갔다. 그러다가 지난해 이정은
선생이 다시 평택시로 돌아왔다. 당사자를 눈앞에 마주하
고 보니 문득 몇 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다.

‘이제 오셨으니 몇 년 전에 이야기했던 사업 다시 해 봐
야죠?’

농담처럼 던진 이 말이 씨앗이 되었고 그렇게 사업이 재
개되었다. 비록 ‘찾아가는 역사토크-우리마을 블루스’라는



오성면 '공간미학'-김해규의 역사토크

색시한 이름이 인성함양프로그램 ‘찾아가는 우리마을 역
사교실’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평택시 평생
학습센터에서는 예산을 마련한 뒤 평택인문연구소에게 책
임을 맡겼다. 기획과 섭외, 홍보, 진행 전반이 우리 발등에
떨어졌다.

평택시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발전은 ‘공업화와 도시화’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평택시의 인구증가는 간척과 근대도시
발전, 미군기지촌이 주도했다. 한국전쟁 뒤 송탄이 가장 먼
저 시(市)로 승격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군기지촌의 인구 밀

집 때문이다. 이 시기에 유입된 인구들은 저학력 저소득자가 많았다. 정체성이나 자긍심도 약했고 정주의식도 약했으며 평생교육이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욕구도 크지 않았다.

2000년대 이후에는 신도시가 조성되고 평택항이나 포승국가공단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지식과 교양을 갖춘 중산층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2010년대 이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비롯한 고급 일자리가 증가하면서부터는 중산층의 유입이 더욱 늘었다. 외부에서 유입된 중산층들은 고덕국제신도시를 비롯해 도시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높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주한 경우가 많아서 평택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도 매우 낮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인구는 100만 명을 넘길 수 있겠지만 평택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 공동체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었다. 평생학습센터가 토박이뿐 아니라 새로 유입되는 시민들에게 정체성 교육, 정주의식 교

육을 시급히,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했던 이유다.

농촌지역의 평생교육 소외 문제 극복도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동기다. 2000년대 이후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평택시도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센터를 개원했다. 하지만 평생학습센터는 수요층이 많이 거주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이충동과 비전동에만 설치되어 농촌지역에서는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날로 높아가는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약해 향유할 기회가 부족했다. 이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와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민주적 문화 풍토 조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평택인문연구소는 사업을 수주받으면서 평생학습센터와 상의하고 협력하며 공연을 준비했다. 처음 마주친 난관은 장소섭외였다. 읍·면·동에서는 행사 자체를 무척 귀찮게 여겼다. '뭐하는 건데, 그거 해서 뭐하게'라고 반문하는 분

진위면 '진위향교'-테너 임덕수의 팝페라 공연



들도 있었다. 행정기관과 시민들의 부정적 태도는 충분히 납득되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이 같은 성격의 교육서비스를 경험해보지 않은 시민들로서는 '찾아가는 역사교실'이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또 다른 교육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작은음악회를 대중 친화적이면서도 질적으로 높은 공연으로 꾸며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다. 적은 예산에 그에 필적할 연주자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홍보 문제도 무척 어려웠다. 농촌지역, 소외된 지역으로 찾아가는 것이 명분으로는 멋있지만, 지금껏 콘서트와 인문학 강연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객을 모은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행정기관과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에게 도움을 구하고, 아파트와 학교, 체육센터, 상가를 돌며 열심히 홍보했다.

우려와 두려움 속에서 5월 30일 청북문화센터 공연을 시작했다. 첫 공연은 공연시간을 저녁 6시로 한 데다 시작 직전에 세찬 비까지 내리면서 40여 명밖에 모이지 않았다. 청북문화센터의 정원이 50명 미만이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관객 수는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참가한 주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은 다음 공연에 희망을 주었다. 6월 9일 팽성읍 객사 야외공연을 앞두고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읍사무소에서도 도움을 줬고 피약별에서 아파트와 상가, 학교를 돌며 전단지들을 돌린 결과 100명 이상의 관객이 모여 성대한 콘서트를 열 수 있었다. 그 뒤의 원평동 공연, 진위향교 공연, 오성면 공간미학 공연도 성황리에 마쳤다. 6회 동안 478명의 관객이 콘서트에 다녀갔다. 함께 참여하여 시(詩)와 음악(音樂)을 즐기고 자신들의 역사에



원평동행정복지센터-최치선의 드론으로 보는 원평동



원평동행정복지센터-이요한의 해금연주

공감하는 시간은 즐겁고 의미 있었다.

주민들은 '내년에도 또 하나'는 질문을 많이 했다. '고맙다'며 내 손을 꼭 잡는 노인들도 계셨다. 함께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읍·면에서 별도로 초청강연을 개최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서탄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서탄면은 인구도 적고 농촌지역이어서 소외감이 컸는데 이번 공연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참석한 정치인들도 행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가 정체성 교육에도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함께 즐기며 배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무엇보다 기뻐다. **소사별**

2023년 6월 2일과 3일 이틀간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한 '신아위, 혼魂'은 우리나라 민속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지영희 선생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풀어낸 평택 최초의 지역특화 창작뮤지컬이다. 2021년 시놉시스 공모, 2022년 전국 오디션을 통한 배우 선발과 쇼케이스 무대, 2023년이 되어서야 본공연을 선보인 평택시문화재단의 3년차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민속음악의 아버지 지영희 뮤지컬로 환생

임봄 · 신아위 · 혼魂 · 작가

뮤지컬 신아위, 혼魂



평택시 포승읍 바닷가 무속인 집안에서 태어난 지영희는 천인(賤人)이라는 숙명에 굴복하지 않고 악기연주에서부터 무용, 작곡, 지휘까지를 두루 섭렵한 꿈 꾸는 예술가이자 현재 우리나라 국악계를 대표하는 제자들을 많이 배출해낸 위대한 교육자이다. 게다가 전통음악이 사라지던 시대적 흐름에 반기를 들고 불굴의 정신으로 우리의 민속음악을 지켜낸 국악계의 독립운동가이자 독보적인 혁명가이기도 했다.

구전과 관습으로만 전해지던 우리의 음악을 오선보에 옮기고 악기를 개량해 관현악연주가 가능하게 만든 것도 지영희였다. 지영희는 전국의 명인들을 찾아다니며 승무, 검무, 굿거리, 호적, 양금, 해금, 피리, 풍류대금, 농악, 무용장고 12채, 경기서도 민요 등을 배우고 익혀 20대에 이미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고 28세에 서울로 올라가 당대 최고 무용수였던 최승희의 무용단 악사로 활동했다. 최승희와 함께 해외 공연을 다니면서 우리 음악의 우수성을 체감했으며 우리 민족이 처한 비극적 상황과 맞물려 있던 국악의 운명에 눈을 뜨면서 민속음악의 생존과 확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영희는 대부분 구전으로 전해지거나 혹은 '가락은 몸으로 전수한다'는 국악계의 불문율을 깨고 국악을 오선보에 옮겨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를 타고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민요를

채보해 우리의 음악이 사라지지 않도록 했으며, 서양음악처럼 국악기로도 합주할 수 있도록 악기 개량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국악이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으려면 후학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 깨닫고 국악인들과 힘을 모아 현재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전신인 '국악예술학교'를 설립했다. 본인이 직접 실기지도를 책임지는 예술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월급도 받지 않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피리, 해금 등 다양한 악기를 가르쳤다. 학생들로 구성된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을 만들어 공연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했다. 제자들에게는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굿판에는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엄격하게 금하는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나 훌륭한 전문연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했다. 그 결과 현재 국악계의 거장이 되어 있는 최경만, 최태현, 박범훈, 이종대, 박승률, 김광복, 한상일, 김재영, 김영재, 최종실, 송선원, 김덕수 등 수많은 제자를 탄생시켰다.

지영희를 수식할 수 있는 단어는 이처럼 차고 넘치지 만, 필자가 지영희 선생을 마음에 품게 된 것은 단순히 위대한 업적이 있다는 이유만은 아니었다. 어지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술가도 저마다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느라 바빴을 때에도 예술의 정신을 잃지 않고 문화재라는 명예를 버린 채 하와이로 건너가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꽃꽂이 예술가의 생애가 두고두고 내 가슴에 남아 불씨를 지켰기 때문이다.

창작뮤지컬 '신아위, 혼穰'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대본

김은태, 신아위, 혼, 작가와 주연배우



이 만들어지고 작곡가 김은태 선생은 그 대본에 지영희 선생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음악을 입혔다. 그리고 그것을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뮤지컬로 잔뼈가 굵은 실력 있는 젊은 연출가 박준영 선생이다. 우리는 작품을 만들기 전에 지영희 선생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 선생의 업적보다는 예술가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작품 공연의 방향을 잡았다. 예술가의 성장 과정에서 느끼는 고뇌와 좌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어야 했던 시대적인 혼란기 속에서도 꿈꾸는 예술가로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갔던 지영희의 모습을 관객들에게 보여주자는 생각이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종착역이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의 정신을 등불에 내걸고 앞으로 나아갔던 지영희, 그리고 그 곁에서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동료이자 삶의 동반자였던 가야금 명인 성금연 명인도 등장시켰다. 그래서 아직 지영희 선생을 잘 알지 못하는 관객들이 이분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꼈으면 했다. 그것이 이 작품의 최종 목적이었던 셈이다.

지영희 선생은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52호 시나위 보유자로 지정됐으나 이민을 떠나면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에 따라 1975년 5월 3일 보유자 자격이 상실되었고 현재까지 복권되지 않은 상태이다. 자격이 상실된 것은 아내 성금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로부터 42년 만인 2017년, 지영희는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국악인은 그분이 만들어놓은 업적 덕분에 민속음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필자는 뮤지컬이 끝난 지금도 당시를 떠올리면 미국에서 날아와 연습하던 때부터 본공연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연을 관람하고, 그때마다 눈물을 쏟으며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던 유족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세상에 처음 모습을 보인 부모님을 그분은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았을까. 이제는 지영희 선생의 삶을 담아낼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시든, 연극이든, 소설이든 예술가의 꿈꾸는 삶이 많은 곳에서 환하게 조명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본다.



공연이 끝난 후

‘신아위, 혼 뮤지컬을 보고



지윤자

지영희·성금연의 자녀
가야금 명인/ 미국 거주

한국을 방문해 여러 가지 일을 보고 미국으로 돌아오려는데 시나위 뮤지컬을 한다고 해서 비행기 날짜까지 뒤로 미루었다. 이왕이면 연습 장면도 보고 싶어 찾아가니 젊은 분 여럿이 모여 있었고 지영희 선생님의 따님이라는 말에 환영하는 모습을 보며 몽클한 마음이 일었다. 그냥 뮤지컬을 보면 되지 굳이 연습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느냐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 일정을 미루고 가보기로 한 것이 지금도 참 잘한 일이라 생각된다.

극 중에서 어머니(성금연)를 표현할 때는 참으로 부드러운 어머니로 묘사한 게 너무 좋았고 아버지(지영희)를 표현할 때는 정말 아버지로 느끼게끔 하는 게 너무 가슴에 와닿았다.

한국에서의 서러움을 뒤로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애절함과 어떻게 든 국악을 전파하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장면들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 연신 눈물을 흘렸고, 평평 소리 내어 울고 싶을 정도로 표현하는 배우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지금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아주 진솔하게 표현해준 뮤지컬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리허설을 비롯해 2번의 공연을 다 봤음에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린 건 그분들의 안타까운 삶과 그분들의 삶을 잘 표현해준 한분 한분께 감사한 마음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임봄 작가가 그만큼 잘 표현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의 자전거, 아버지의 책가방, 서재도 없이 한 칸 방에서 무릎과 무릎이 마주 닿게 해 놓고 방 바닥에 엎드려 악보를 그리시던 모습, 작은 가야금, 피리, 대금, 장고 등을 주욱 성벽치듯 놓고 악보를 그리시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생각날 정도로, 아니 아예 직접 본 듯이 그려지던 뮤지컬, 정말 단편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아까웠다.

마지막 날에는 언니도 연신 눈물을 닦아내는 것이 보였다. 그분 또한 같은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나중에 전국을 순회하고 미국도 순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참으로 좋았다.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 남은 인생 자식들 한자리에 모여 부모님을 생각하며 가족사가 두텁게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임봄 작가님을 비롯해 평택시와 평택시문화재단,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소사별**

평:平 / 채우다

☀.tree
다운그리머

☀.tree
다운그리머

다운그리머

평택시 예비사회적기업 (주)인트리와 그림짜 연극 이야기

박경민 (주)인트리 대표

Q.
설립목적

A. 다양한 사회적, 교육적, 환경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개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전래극, 예술극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내용을 창작 그림자극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연령의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써 재미와 의미를 느끼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관람객들이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Q.
(주)인트리 소개

A. 저희는 주식회사 인트리라고 합니다. 극단은 ‘다운그리메(그림자로 좋은 일이 다가온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림자 극단과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지역의 공공기관과 창작 공연을 제작하여 평택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세먼지 관련 환경



제9회 평택시 사회적 경제 주관 기념행사 수상식

극, 유아생명존중, 문화다양성, 아토피천식예방극, 화상, 화재 안전 그림자극 등 다양한 주제의 창작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어르신 치매예방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정서지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다양한 연령,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기획, 제공하고 있습니다.

Q.
그림자 연극 이야기

A. 그림자 연극은 예술적 감각뿐만 아니라 과학적 지식까지 필요한 종합예술입니다. 저희는 컬러그림자극으로 관절 인형을 통해 좀 더 생동감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속

에는 배경도 중요합니다. 지역의 문화재나 장소를 배경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배경은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을 접목하고, 움직이는 인형에 색감을 넣어 예술적 감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입견, 차별, 고정관념 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극을 만들 때 극본, 인형, 등장인물 등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며 극을 만들고 있어요.



그림자 연극 인형 제작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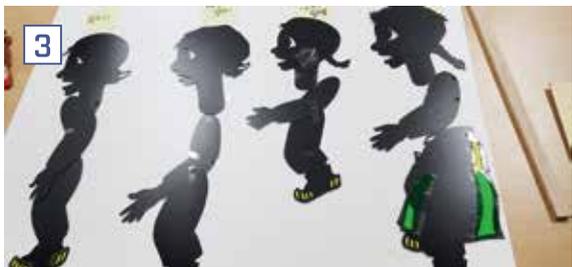
인형 및 배경 디자인



아트 커팅(PP, 페이퍼)



관절 및 움직임 부분 조절



인형 사이즈 조절



관절 인형 조립(완성)

Q. 공연이 탄생하기 전까지 과정

A. 저희는 먼저 이야기의 주제에 관한 스터디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서치, 인터뷰, 자료 수집 등 연구 단계가 끝나면 창작 작업을 합니

다. 시나리오를 만들고 배경, 인형 디자인, 음악 제작이 끝나면 드디어 가장 어려운 빛과 그림자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배우들은 인형을 들고 빛에 맞춰 바닥을 기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하며 멋진 공연을 만들어갑니다. 저희가 농담처럼 어떤 유명한 배우라도 그림자극은 못 한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만큼 그림자극은 만드는 과정부터 공연에 올라가기까지 긴 제작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Q.
그림자
연극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

A.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하얀 스크린에서 그림자가 나타나는 순간, ‘와~’ 하며 신기해합니다. 흔히 보는 그림자이지만 배우 외에도 스크린 뒤의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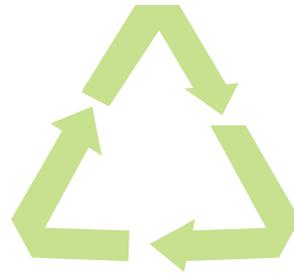
팀, 제작팀의 노력으로 그림자는 생명을 얻게 되지요.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저희의 극을 통해 관객들이 인식하고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보던 그림자가 생명을 얻어 관객들에게 행복을 주듯 인트리는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에 작은 힘이 되고 싶습니다.

Q.
앞으로 계획

A. 요즘은 그림자극을 하고 싶어 하는 교사, 단체 연수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는 대학생 발달장애인 청년 팀이 제1회 평택시 <장애인예술제>

에 선정되는 기쁨도 생겼어요.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극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트리’ 라는 이름을 지을 때, 많은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행복의 나무를 키우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희 팀원들뿐만 아니라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행복의 나무를 키워가고 싶습니다. **소사벌**





희망의 근거 : 알파탄약고 공간문화재생 운동의 성과와 과제

황우갑 알파문화예술공원추진위원회 사무국장

2023년 6월 21일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7공군 사령관이 '알파탄약고 임시 이전 합의 권고문'에 서명하면서 알파탄약고의 전량 이전이 확정됐다. 합의 권고문에는 한국 측에서 관리하는 탄약고의 시설 개선 후, 알파탄약고의 탄약을 시설 개선된 탄약고로 지체 없이 전량 이동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탄약고 이전 후 정식 이전 절차를 거치겠지만 지난 17년간 알파탄약고 문화예술공원 운동에 실무를 맡아 활동한 사람으로서 이번 서명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고덕국제신도시 부지 내 자리한 알파탄약고 이전이 늦

어지면서, 신도시 입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는 물론 도로와 학교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많은 평택지역 주민들은 탄약고를 우회해서 다녀야했기에 교통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도 컸다. 탄약고 반환은 여러 차례 연기되어서 지역사회의 불만이 컸다. 용산 기지 등 전국의 주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만큼 불이익을 감수해온 평택에서 반환 예정 미군기지는 가장 먼저 반환받아야 마땅했다. 이에 2022년 8월에는 고덕동 주민단체들과 알파문화예술공원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범 시민 서명작업과 주민 릴레이 1인



알파타워 아파트 전경

시위 등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런 노력 속에 민관협력의 뜻이 모아져 이번에 반환이 가시화에 다가가는 성과를 만들었다.

200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이어져온 알파타워고 공간문화재생 운동은 크게 3가지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첫째, 그간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반환 이후 일부 탄약고의 존치가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집중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탄약고는 반환 이후 신도시 계획에서 사라지고 아파트 부지 등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구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수억원대 용역사업에 가까운 일에 맞먹는 국내의 사례답사, 공청회, 토론회, 전시회, 홍보사업, 신문 기고 등 여건이 닿는 범위에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속적인 학습조직 구축을 통해 사례를 모으고 현장을 답사하고 평택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등을 수집했다는 점이다.

둘째, 평택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업의 하나이자 구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역대 평택시장의 일관된 지원과 평택시의회와 국회의원 정치권과 사명감

실천 사례로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학습에 바탕을 두고 꾸준히 실천될 때 지역사회 운동은 그 지속성과 실천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례로서도 기억될 것이다.

이제 반환 가시화에 한발 다가선 만큼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첫째,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는 노력도 원칙으로 가지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공간의 역사성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전파할 수 있다. 가능한 한 번에 다 만들지 말아야 한다. 하나씩 만들어 나가자. 이것저것 채우려고 하다보면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다. 고민을 덜한 공간은 “유보지”로 나뉘야 할 것이다. 특히 미래 세대도 고민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들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공간을 이용하게 될 주요 소비자가 청소년과 청년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반환과 활용에 대비해 몇 가지 원칙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도 필요하다. 공간의 역사성을 존중해서 군사시설의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 가치를 해석하여 설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탄약고의 원형 반환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미군측이 군사상의 이유 등으로 탄약고 공간을 없애고 반환 받는 순간, 이



알파탄약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2021년 12월 16일 평택문화원 대동관)

공간의 가치는 소멸하고 만다. 셋째, 평택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향후 최종 반환 시기, 반환 이후 과정, 공간 활용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만들어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알파탄약고의 공간 재생은 초점을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미군탄약고 공간문화재생 공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평택이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이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커다란 비전속에서 추진되도록 평택시와 지역사회 각계의 노력이 요청된다.

다행히 평택시에서도 정장선 시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 7월 13일 평택시청에서 비전 선포식을 가



출판기념북토크(2023년 4월 1일 송탄출장소 대회의실)

지고 이곳을 미군탄약고를 활용한 세계적인 문화아이콘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 17년간 시간은 최선의 고통 그 자체였지만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최선의 고통이 다시 시작 될 것이다. 이번 서명으로 이제 반환 가시화라는 희망의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제 남은 문제는 보편적 공익을 생각하는 제대로 된 실천일 것이다. **소사별**

쌀 그리고 空間米學 공간미학

전대경 평택 미등영농조합법인 대표

지난 2023년 3월 20일 평택시 오성면 신리 조용한 시골마을에 “공간미학(空間米學)”이 개관했습니다.



방치된 벼싯재배사

본래 “공간미학”은 1992년 농촌소득사업 일환으로 만들어져 벼싯재배사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의 염도가 너무 높아 벼싯재배가 어렵게 됐고 결국 경제성 상실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일부 공간은 주민들의 농기계 창고로 활용되었으나 대부분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혐오시설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공간미학 전경

그래서 2021년 마을기업인 황금뜰신리마을과 평택시 관광과가 함께 경기도문화재단이 공고한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재생사업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최종 선정되어 2년의 조성 기간을 거쳐 올해 완공되었습니다. 신리주민들이 쌀 재배를 중심으로 살아온 점과 조용한 농촌풍경이 잘 살아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간미학(空間米學)”이라는 예쁜 이름도 지어졌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신2리길 59-18 이라는 새로운 주소도 생겼습니다.

“공간미학”은 마을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커뮤니티 공간,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전시관, 지역특화상품 판매동으로 공간이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한 경기문화재단과 공간미학의 공간설계 기획을 하면

서 신리 특산물인 “쌀”에서 착안하여 지붕 외형을 “ㄹ(쌀시옷)”이 중첩되는 형태로 만들고, 전시공간과 마을커뮤니티 공간으로 분리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한 문화복합 공간으로 설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설계에 참여한 건축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992년 조성된 창고 외형이 지역적 문화를 잘 나타내는 건축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말하면서 “신리 논-밭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게 개방성을 강조하여 공간미학을 찾는 분들에게 평택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게 설계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완공 후 건축의도에 맞게 논밭이 너무 멋있었다며 많은 방문객들이 칭찬을 해주시며 좋은 전시에 걸맞는 휴식 공간이라는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공간이 조성되는 동안 신리 주민들도 개관에 맞추어 다양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방문객들이 오랫동안 머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리쌀면”입니다. 신리의 쌀로 만들어진 생면과 건면을 이용하여 들기름국수, 콩국수, 비빔밥, 곰탕을 준비했습니다. 쌀로 만들어진 다양한 빵과 과자도 준비했습니다. 특히 평택쌀과 배로 만든 이름하여 “평택배빵”은 앞으로 평택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크답니다.

주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옛것들을 모아 전문가들의 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너무 아쉬웠던 것은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유물들을 고물상에게 헐값으로 팔아 전시할 만한 유물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유물들을 잘 평가하고 사진으로라도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공간미학”에는 오래된 유물 등 과거를 기록하는데 집착하지 않고 쌀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색으로 표현하는 신리마을은 어떨까? 소리로 기록하는 신리마을은? 벼가 자



공간미학 이진경 작가 초대전 생킨대로

란 논흙으로 만든 도자기에 밥을 먹는다면 밥맛이 어떨까?’ 이런 다양한 의문들을 현실화 시키느라 신리마을이 요즘 무척 바빠졌습니다.

전시관에도 다양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개관식 첫 번째 전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실험미술의 거장 이진용 작가님의 작품들을 경기도문화재단 도움으로 전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시는 홍천기 작가님과 벼의 일생을 달력으로 예쁘게 만들어 봤습니다. 매 월 벼농사와 관련된 글자를 지정하고 문자를 이용한 그래픽을 만들어 달력으로 제작

한 것입니다. 1월은 농사의 시작이니, 2월은 종자가 숨쉬기 시작하고, 3월은 종자가 움트고, 4월은 종자가 흙을 만나고, 5월은 생명의 원천인 물을 만나고, 6월은 어린 모가 되고, 7월은 풀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8월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벼 꽃이 피고, 9월은 황금 들녘이 풍요로움을 더하고, 10월엔 벼가 공간에 저장되고, 11월 12월에 쌀과 밥이 되는 과정을 표현했습



신리마을 찾아가는 유물 감정평가회



공간미학 특별 기획 초대전
이건용, 그와 나의 이야기 포스터



공간미학 개관 기념전 農畝의 노래
/홍천기 작가



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 번째 전시는 우리농촌의 아름다움을 간결한 그림과 글로 표현하는 이진경 작가님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재즈공연과 함께하는 작가와의 대화도 정말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신리 마을행사도 이젠 “공간미학”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금년 효잔치도 그동안 각 마을별 따로 진행하던 것을 네 개 마을이 모두 모여 흥겹게 치뤘습니다. 평생시학습센터에서 주관한 “찾아가는 우리마을 역사 교실”도 개최했습니다. 마을기업 운영회의도 공간미학, 친한 친구가 찾아와도 공간미학, 거래처 직원이 방문해도 공간미학... 이제 공간미학은 신리 주민들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평생시민들의 일부분

이 되고 싶습니다.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더 다양한 전시와 건강한 먹거리로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공간미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사별**



황금돌신리마을 효잔치

2023 평택문화원 직원 워크숍

복합문화예술공간 **다다** dada⁷

문화기획부



이형범 다다 총감독과 함께 다다 앞에서



요즘 생활문화센터가 증가하고 있다. 생활문화센터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문화가치를 실현하고 문화를 즐기는 삶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의하면 2020년~2022년 사이에 다양한 문화기반시설 중 공공도서관(74개), 생활문화센터(44개), 미술관(18개) 순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가 편찬하고 있다. 이 총람은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기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총람에 수록된 운영현황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내용은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문화기반시설 세부운영실태, 지역문화재단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20~2022)

문득 평택에도 생활문화센터가 있는지 궁금해서 알아본 결과 ‘현덕생활문화센터’가 있었다. 하지만 홈페이지도 없고, 온라인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추가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 복합문화예술공간 다다(多多)를 발견했다. 이러한 내용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2023년 7월 6일에 직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최희련 문화기획부 주임

다다(多多)는 언제, 어떻게 운영하게 되셨나요?

이형범 총감독 다다(多多)는 2022년 12월 11일에 개관했습니다. 평소에 안중읍에는 문화예술 관련 시설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주변만 둘러보아도 유흥가만 준비할 뿐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기 위해서 타지역까지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중에도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황수근 문화사업부 학예사

다다(多多)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이형범 총감독 다다(多多)의 설립목적은 생활문화예술 인뿐만 아니라 동네주민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진인 '다같이 다함께'에서 따와 '많을 다(多)'를 사용해 표기했습니다.

유인주 문화기획부 팀장

이곳은 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이형범 총감독 주로 생활문화예술인들 간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때론 동네 주민들이 잠시 쉬었다가 가는 편안한 사랑방같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정진솔 문화사업부 주임

감독님께서 '생활문화예술인'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예술가랑 다른가요?

이형범 총감독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격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예술가의 뜻이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청소년들이 이 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사람을 찾습니다' 프로젝트의 포스터를 디자인 해주고, 영문번역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생활문화예술인이자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이형범 다다 총감독과 인터뷰 하는 모습



청소년들이 디자인한 포스터



다다와 함께하는 청소년들

김채민 문화사업부 주임

이곳에서 어떤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나요?

이형범 총감독 2022년에는 개관식을 기념하기 위해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통기타동호회와 마술사의 공연을 진행했으며 2023년에는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장르의 예술가를 찾아 그분의 기술을 활용하여 다 함께 즐거운 문화활동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어쿠스틱 듀오, 하얀나비, 이선범 문화기획자 등을 찾아 공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개관식(2022)

박송이 웃다리문화촌 주임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형범 총감독 저는 다다(多多)뿐만 아니라 포승읍에 있는 화수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수분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캠핑, 원데이클래스, 연극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계획은 생활문화예술인, 동네주민들이 서로의 소소한 취미를 나누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일상화 문화가 공존하는 생활밀착형 문화 거점 공간을 만드는 것이 계획입니다. **소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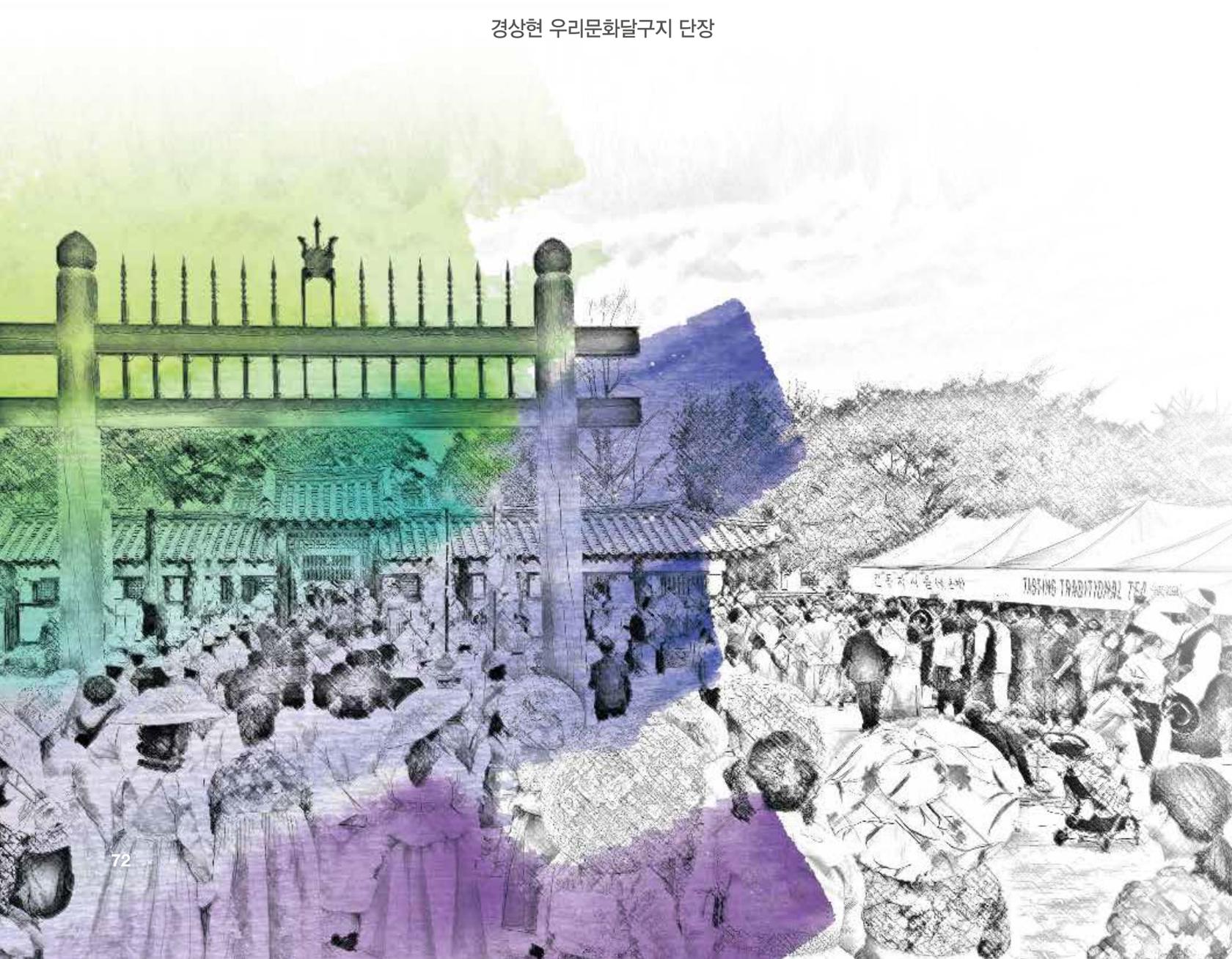


개관전

문화예술기획단체 우리문화달구지

주민과 문화적 행복을 설계합니다

경상현 우리문화달구지 단장





주민 문화달구지

우리문화달구지는 2014년에 주민들과 문화적 행복을 향유하고자 설립되었으며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생생문화재 사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지역의 문화재를 본질적으로 활용하고 그 가치를 주민들과 공유 및 향유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는 본 사업에 매료되어서 지금까지 주민 주도적 참여형으로 9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적 참여형으로 방향성을 잡은 계기는 지역의 문화행사가 주민들에 의한 지속성의 유지를 염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주민들께서 호응을 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업의 인지 부족과 객사 주변에는 문화재로 인하여 재산적 불편함이 많은 주민들이었고 지역의 소음 등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역의 문화행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사를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을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금까지 총 70여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명분과 이유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추진단체의 진정성있는 설득만이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사업 인지는 물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팽성읍 객사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추진함은 큰 의미와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팽성읍 객사는 팽성읍의 옛 지명인 팽성현의 현감이 객사에서 한양에 계신 임금께 예를 올리던 망꺠례와 외국 사신을 맞이하고 교지를 받을 때도 객사에서 받는 등 격이 높고 중요한 관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문화달구지는 팽성읍 객사의 프로그램으로는 위에 설명한 100년 만에 재현되는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 사신을 찾아라, 바느질 부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



사신을 찾아라

첫 번째, 전통문화를 100년 만에 주민들과 함께 재현하는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옛 동헌 자리(팽성행정복지센터)에서 평성현의 현감이 객사로 가기위한 행렬(퍼레이드 1.8km)을 팽성읍의 객사리와 송화리를 행진하여 객사에 도착합니다. 객사에 도착하면 망꺾레 의례를 진행하는데 모든 출연진은 사전에 연습한 주민들입니다. 특히 인근 2km 내에 위치하고 있는 k6 캠프헵프리스 미군가족들의 참여는 우리의 전통문화 축제의 의미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신을 찾아라'는 온 가족이 함께

평택향교를 시작으로 지역의 문화 유적 등을 문화해설과 게임, 퀴즈 등을 통하여 주요 역사적 거점을 통과합니다. 1.2km를 지나서 팽성읍 객사에 도착하여 사신을 찾는 우리동네 역사이야기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바느질 부대'는 임금님 만나러가는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4개월 전 부터 전통 복식을 손수 지어 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들의 행사참여 의지가 보이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주인공인 지역 문화 축제를 만들어가는 것은 조금 힘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역의 문화



바느질 부대



바느질 부대



축제는 주민들이 앞에 계셔야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축제가 같을 수는 없지만 이번 축제만큼은 최소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정체성을 부각하고 문화적 가치의 향상을 통하여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고자 합니다.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겠지요.

앞으로는 한-미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문화기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늦은 가을에는 문화세미나를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문화적 설계를 위하여 전문가의 생각과 주민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 번의 자리로 정리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동네 문화의 방향성과 그에 따른 추진해야 할 콘텐츠를 시행착오를 줄여서 세울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기획, 공연연출과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많은 저로

서는 축제를 접할 때에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정체성을 부각하고 그로 인한 브랜드 상승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성이 감동스러운 과정으로 다가옵니다. 문화행사와 문화축제는 도시의 얼굴이고 지역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감독할 때 스토리를 생각하게되고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민합니다.

또한 축제를 통하여 지역에 마르지 않는 문화적 선물이 되도록 고민스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생생문화재 임금님 만나러가는길이 2022년에는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하고 2023년에는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대상:평택시/감독상:우리문화달구지)을 수상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100년 지역축제의 첫걸음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소사별**



2022년 문화재청장상 수상

평택시의회 간담회 ‘평택문화원의 역할과 과제’

문화기획부



간담회에 참석한 평택문화원 임직원, 평택시의회 의원, 관계자

2023년 개원 70주년을 맞은 평택문화원은 2023년 5월 22일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문화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평택시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평택문화원 이보선 원장과 임직원 30여명, 평택시의회 이관우 부의장과 최재영·김승겸·강정구·최선자·김순이·김명숙·이종원 의원을 비롯해 문화예술과 과장 등 관계 공무원,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평택문화원에서 발간한 각종 도서 및 자료집

간담회장 입구에는 평택문화원에서 발간한 각종 도서 및 자료집 100여 종을 전시하며, 평택문화원이 지금까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이를 시민과 함께하고자 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프레젠테이션 '평택문화원의 역할과 과제'

간담회는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 최치선 상임위원이 '평택문화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였다. 우선 평택문화원의 조직과 현황, 목적사업, 변천사와 시대별 주요 사업 실적, 핵심과제를 알아보고 조사·연구·편찬 사업,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 사업, 전통문화 발굴·보존 사업, 웃다리문화촌 운영 등 평택문화원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략과 비전을 시설구축, 인재 구축, 콘텐츠 구축, 문화향유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평택문화원 발전을 위한 간담회

프레젠테이션 이후 이보선 원장의 보충설명이 이루어졌고, 평택문화원에 대한 현안에 대한 평택시의회 의원의 각종 질문이 이어졌다. 이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과 논의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소사별**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범용이의 젊은 날

서정리에서 만호리까지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팀

1960년 평택군 송탄면 지산동에서 태어난 이범용은 서정리에 있는 효명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하대 재학중 전투경찰로 군복무를 마쳤다. 그의 앨범 속에서 건져낸 기억, 당시 1번 국도변에 있는 효명고 앞 풍경과 1979년 평택경찰서 소속 전투경찰로 포승 만호리 어선신고소에 근무하던 만호리 선착장 일대 모습을 기록으로 담아냈다. **소사별**



1번 국도 따라 하교하는 모습.
형편따라 버스나 자전거 아니면 그냥 걸었다



1번 국도 서정리 방면

**서정리 효명고와
1번국도**



효명고 정문 도로 건너
매점. 버스 기다리며 먹는
호떡은 정말 꿀맛이었다.



효명고 전자과 건물 뒤로 서정리시가지와 부락산이 보인다(1976년)



만호리 선창 옆 갯벌 뒤의 흰색 건물은 수협 창고, 마을에서 선착장으로 향하는 해안

만호리선착장



솔개바위 에서 본 만호리 선착장. 대조기 간조때 선착장 끝에 겨우 배를 탈수 있어 어획물을 이동하느라 애썼던 어민들



동료들과 꽃게를 들고



만호리 어선신고소 직원들에게 밥을 해주셨던 경찰관 부인
그땐 몰랐지만 이제보니 정말 고마운 분이셨지요.



평택 만호리 당진 한진포구를 하루 세번 연결하는 도선.
그당시 충남 당진을 가려면 육로로 천안에서 예산 합덕으로 돌아갔다.
이 연락선을 이용하면 가깝게 갈 수 있었다.
이 연락선은 1979년 삼교천 방조제가 완성된 후 사라지게 된다.



1979년 포승면 만호리 어선신고소에 근무하며
해안초소에서 경비 서던 범용.
당시 평택경찰서 소속 전투경찰 3명과 경찰관 1명이 근무했다.



천방지축 어린이등절 비글비글 돌아가는

인턴의 하루

김가람 평택시 인턴

안녕하세요! 3개월 동안 평택문화원에서 근무하게 된 김인턴입니다.



업무에 앞서 오티 진행하기

평택시청 문화예술과에 도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평택문화원으로 이동한 뒤 자리를 배정받고 제일 먼저 '평택문화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날에는 문화원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다음 날부터 조금씩 업무를 주셨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크게 3가지로 문화학교, 인턴의 하루, 조명 박스 제작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택문화원 문화학교 프로그램 기획하기

문화학교란? 취미 생활이나 문화 예술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문화 강좌를 개설하여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예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제 첫 업무입니다! (역사가 긴 평택문화원에서 처음으로 문화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업무를 해보라며 기획을 주신 국장님... 정말 더 럽 ♥)

처음 알아보는 업무라 너무 막막해서 감도 안 왔었는데 주임과 팀장님께서 많이 알려주셔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기획 진행 과정을 보자면 →



이와 같은 순서대로 추진하다 보니 벌써 인턴 6주 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ㅎㅎ (하나의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1. 자료 조사하기: 타 문화원, 인근 지자체 프로그램 조사
2. 문화원 고유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안 작성
3. 컨펌 후 계획 일정표 작성
4. 강사섭외(강의계획서, 의견조율)

사업계획서
작성 및
결재 올리기

《소사벌》에 실릴 '인턴의 하루' 원고 작성, 브이로그 촬영하기

문화학교 진행 과정 중 주임님의 제안으로 하게 된 '인턴의 하루'. 평택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소사벌》이라는 소식지에 인턴 생활을 담아보는 게 어떨까라며 주신 업무로 다른 것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라고 생각되어 냉큼 받았습니니다.(물론 다 OK는 아니고 수



《소사벌》 원고 작성하는 모습

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먼저 어떤 식으로 원고를 작성할지 콘셉트를 정하고 1차적으로 초고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는 인턴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가볍게 읽을 수 있고, 이곳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만화 컷과 함께 섞어서 블로그 형식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1차 초고를 쓰고 주임님께 컨펌받고 피드백을 통해 수정하고 쓰고 수정하고 반복하며 글을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턴을 하면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옆에서 실무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모르는 부분은 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 사업 관련 일을 처음 하면서 생각보다 행정적인 업무에 서툴렀지만, 이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 갈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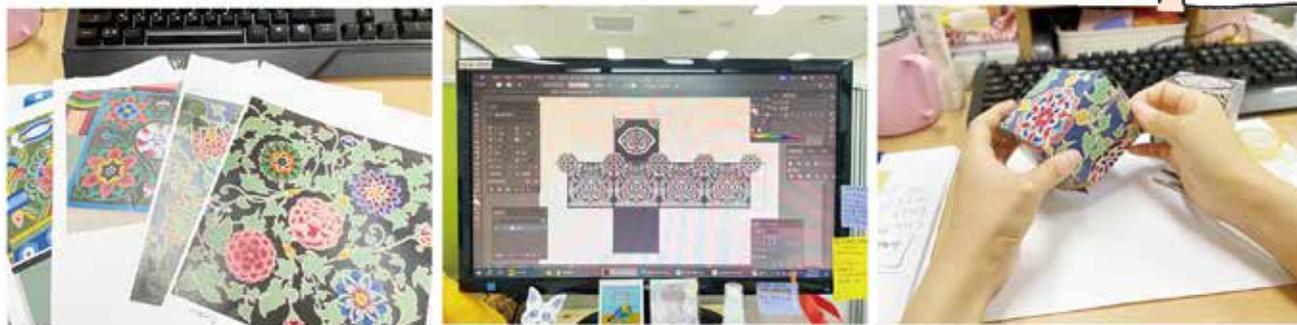
앞으로 남은 인턴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미숙하고 어색하겠지만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알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소사벌**



한여름 밤의 진위향교 조명 박스 제작하기

마지막으로 문화원에서는 향교를 활용한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중 '한여름 밤의 진위향교'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갈 조명 박스를 제작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미지를 검색하고 아크릴 박스 견적을 낸 뒤 필요한 품목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갑니다. 제작하기 전 1차적으로 도안을 만들어 비교해 보고 어떻게 나올지 대조해 가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삼봉정도전서화대전' 작품 분류 작업, '평택학 학술대회' 참관, '한·미 어린이 서머스쿨' 인력 지원 등 다양한 보조업무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조명 박스 제작 진행 과정

시간이 담긴 공간에서

김한슬 웃다리문화촌 주임



웃다리문화촌 본관과 조형을 동글이

도시 재생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기능이 상실된 구도심의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학교, 창고, 공장 등 버려진 건축물에 온기를 불어넣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익숙한 외관의 건축물을 유지하고 낯선 내부 공간의 새로운 쓸모를 창출한다. 변화된 곳이 될 지라도 무한한 시간이 그 공간에 쌓여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는 이 특이성 때문에 버려진 건축물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모든 것을 허물고 다시 시작되는 '재개발'과는 달리 '재생'은 공간을 생명체로 인지한다. 역사와 정체성을 유지하며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는 이 행위는 단순히 공간을 재사용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익숙한 것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독창적 경험을 제안하고 낙후된 지역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 결속, 역사적 장소 보존, 창조성 등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다.

학교는 과거의 특이한 정취 때문에 재생 공간으로 급부상한 건축물로 대다수의 폐교가 문화공간이나 교육시설로 활용된다. 학생 수 감소로 이용하지 않는 전국의 폐교는 2022년 기준 351개이며 교육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한 폐교 문화공간이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당진 아미미



웃다리문화촌 상설전시 옛교실

미술관, KT&G 상상마당 논산, 고흥 연흥미술관,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 예술터가 있다. 그중에서도 KT&G 상상마당 논산은 다양한 지역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넣은 재생 공간의 성공적인 본보기이다.

KT&G 상상마당 논산은 1992년 폐교된 한천초등학교를 매입하여 교외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이곳은 농촌이라는 소외된 지역 인프라의 구축을 돕고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하여 주민과의 상생을 제안한다. 또한 지역의 교육청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육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기존의 KT&G 상상마당은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전시, 공연, 아카데미 운영 등 대중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고 비주류의 문화를 함께 다루며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KT&G 상상마당 논산은 기존에 제시했던 시각과는 달리 자연이 어우러진 가족 중심적 공간이다. 교실, 강당, 운동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이미 갖추어진 폐교의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곳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접목한다. 전시와 더불어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캠프를 통해 문화예술콘텐츠를 즐기는 2박



KT&G 상상마당 논산
©KT&G 상상마당 홈페이지



'사유의 형태들 2023' 김은하



'사유의 형태들 2023' 윤진섭



'사유의 형태들 2023' 박근용

3일 일정의 '아트캠핑빌리지', 어린왕자의 보아뱀을 모티브로 한 다목적공간 '아팅라운지'를 기획하며 개관 후 8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문화예술 명소가 되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평택문화원 웃다리문화촌 또한 우범지대로 변질된 폐교 금각국민학교(1945.10.1~ 2000. 8.31.)를 2006년부터 마을주민과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전통문화체험, 생활공예, 금속공예, 한지공예, 농악,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

여 지역 커뮤니티를 연결했다. 체험이 특화된 이곳에 관람객들이 오가며 2020년까지 약 15년 동안 낙후된 지역이 활성화되었다.

이후 2020년부터 또 한번의 공간 재생을 통해 문화예술과 자연생태가 공존하는 전시기반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를 주었다. 2021년 웃다리문화촌 기획전시 <감각의 정원>을 시작으로 전시기반의 발판을 마련하고, 상설 전시 <옛교실>을 통해 학교라는 정체성을 보존한다.

‘지속가능’이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폐자원의 활용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환경 기획전시 <사유의 형태들 The Forms of Thought>은 2022년을 시작으로 2회째 개최하고 있다. 이것은 재생 공간이라는 공간성과 크게 맞물린다. 삐걱이는 마룻바닥과 옛 학교 흔적들을 품은 공간은 ‘지속가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공간과 전시는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그 속에서 관람객은 창조성을 느낀다.

웃다리문화촌 공공미술 사업 ‘조형예술연구’의 2021년 작품 신예진 <숲을 향하여>는 노후화된 옛 화장실 터를 재사용한 공간설치 작품이다. 재생 공간 속 작은 재생 공간으로 오래되어 금이 가거나 깨진 구조물의 보수 과정이 담겨있다. 작품은 웃다리문화촌의 대표 나비 종을 착안해 공감각적인 시선으로 재해석한 자연 속 나비를 표현한다.

‘재생’이란 그 공간에 깃든 시간의 지층을 현재와 접목하는 일이며 새로운 건축물에서는 느낄 수 없던 역사와 정체성을 지속한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독창적인 공간성이 웃다리문화촌에게 특별함을 선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닐까. **소사별**



웃다리문화촌 문화예술체험-떡메치기



2021 웃다리문화촌 공공미술 사업 ‘조형예술연구’ / ‘숲을 향하여’ 신예진



우리들의 닻새 간의 추억 만들기

다시 찾아온 한·미 어린이 서머스쿨

김채민 문화사업부 주임

2023 Korean and American Children Summer School



가슴 벅찬 5일간의 여정. 2023년 8월 다시 만난 한미 어린이들은 활기가 넘쳤다. 평택오산미공군기지 공보실의 협조로 K-55 주한미군 초중학교 학생 15명과 평택시 초등학교 5~6학년 15명이 모였다. 그 재미와 감동이 어우러진 이야기 속으로 출발~!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의 우호를 다지다

전통문화교류 및 양국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 마련한 ‘한·미 어린이 서머스쿨’은 그 취지가 뜻깊다. 평택문화원 주관, 평택시 후원으로 8월 7일(월)부터 8월 11일(금)까지 탈춤교실, 전래놀이, 합창교실, K-POP댄스교실, 전시 관람 및 생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진위향교, 국립과천과학관, 광화문일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제대학교, 옷다리문화촌,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각각 진행됐다.



1일차 이야기

신명나는 아이들

아이들은 진위향교의 고즈넉함을 무척 좋아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룹별 자기소개를 진행하고 팀장을 뽑았다. 총 3그룹으로 각각 10명의 한·미 어린이들이 배치되었고, 그룹별 공연 준비, 미션 수행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첫날이라 긴장한 모습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탈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다. 서울투어 간식을 곁고 진행한 '비석치기'는 긴장감과 재미를 가져다주었다. 진지하면서도 장난기 가득한 모습. 아이들은 그런 모습조차도 사랑스럽다.



오리엔테이션



2일차 이야기

서울나들이

국립과천과학관은 2008년 개관하였고, 전시품의 50%이상을 체험·참여형 공간으로 구성해 관람객들의 인기가 많은 곳이다. 한·미 어린이들은 천체투영관 관람 이후 미래상상SF관, 한국문명과학관 등에서 그룹별 미션을 수행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점심식사 후 광화문으로 이동해 청계천광장에 웅기종기 앉아 냇가에 발도 담그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더위를 식혔다.

투어의 대미를 장식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주한미국대사관 옆에 위치하고 있다. 입구에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팻말에 걸맞게 한·미동맹의 역사를 비롯하여 시기별 대통령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4층 체험관에서는 풍성한 체험 거리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청계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일차 이야기



K-POP

춤추고 나비보고

국제대학교 국제관에서 K-POP댄스교실을 진행했다.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다는 뉴진스의 음악에 맞춰 모두 멋진 춤사위를 뽐냈다. 오후에는 옷다리문화촌으로 이동해 환경 전시를 관람하고 재활용품을 활용해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앞서 오리엔테이션 때 만들었던 플래카드를 들고 그룹별 사진도 찍고, 나비정원에서 직접 나비도 관찰했다.



4일차 이야기



태풍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열정

간밤에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걱정을 했지만 아이들은 2명 빼고 전원 출석했다. 3일차까지 출석부 100%를 자랑했는데 태풍이라니 좀 아쉬운 대목이긴하다. 아이들은 전래놀이인 '산가지 놀이'를 하며, 친목을 다지고, 탈춤과 합창교실을 마친 후 무사히 귀가했다.



산가지놀이



합창교실



아쉬움을 뒤로하고

5일간의 짧은 시간에도 아이들은 성장한다. 어느새 선생님 짐을 들어주겠다고 나서고, 친구를 도와주고, 깃발을 들고 인술을 돕기도 했던 아이들.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양국학 부모님들과 핑택시 관계자, 핑택 문화원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무사히 마쳤다.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기를... **소사별**



수료식 단체사진



탈춤공연



합창공연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나요?

"네, 한국인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데이비드. 루카가 제 친구예요." Stephanie Gustave(Osan AB-7nd grade)

"방금 친해져서 잘 모르겠는데 레미야하고 친해졌어요. 기회가 되면 '라일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김소림(동석초-5)

무엇을 배웠나요?

"I leard a bunch of the korean dances." (한국의 다양한 춤을 배웠습니다) Maya Horwitz(Osan AB-7nd grade)

"탈춤수업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어를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정세린(소사별초-5)

친구들에게 '한-미 어린이 서머스쿨'을 추천해주고 싶나요?

"Id want to tell them this is a great program and they should really come here." (나는 친구들에게 이것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그들이 여기 와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Emma Horwitz(Osan AB-2nd grade)

"네, 엄청 재미있어서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어요. 주변에 추천을 두 번 했어요. 재미있으니까 참여해보라고요." 김예준(지산초-5)

참가자들의 톡톡 인터뷰

평택문화 CAFE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을 위한
두 번째 걸음



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을 다녀오다!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추진위원회

평택시와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추진위원회는 2023년 5월 12일(금)에 평택문화원사 건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학교와 마을 그리고 주민을 잇는 곳인 화성시 이음터와 폐교된 영성 여자중학교를 활용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를 방문했다.

화성시 이음터

화성시 이음터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하나이다. 마을 전체가 선생님이 되고, 학교가 되어 마을 안에서 배우는 행복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는 곳이다. 동탄중앙이음터, 다원이음터, 송림이음터, 동탄목동이음터 등 총 7개 이음터가 있으며 각각 이음터마다 연극, 음악, ICT 등 테마별 특화사업이 있다. 우리는 이 중 문화예술과 관련된 동탄목동이음터와 다원이음터를 다녀왔다.

이음터란?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학교복합시설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함.

동탄목동이음터

동탄목동이음터는 음악과 미술이 특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3층에는 회화실습실, 시각디자인실, 웹툰창작실 등이 있고, 4층~5층에는 실내악실, 밴드연습실, 미디어녹음실, 오케스트라실 등이 있다.



동탄 목동이음터 전경



밴드연습실



웹툰실습실

다원이음터

다원이음터는 연극, 뮤지컬, 영화, 미디어가 특화사업으로 많은 공간이 소극장, 미디어창작소, GX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음터 시민학교, 원데이클래스, 청소년동아리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이 중 '연극영화과' 사업이 흥미로웠다. 이 사업은 청소년 및 성인이 대상이며, 연극반, 영화반, 뮤지컬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예술제를 통하여 단원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재능과 끼를 펼칠 기회를 제공한다.



다원이음터 전경



소극장



마을미디어 스튜디오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 예술터 입구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 예술터

꿈꾸는 예술터는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시·성남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유허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폐교시설인 구영성여자중학교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 개관한 곳이다.



손기술랩



이미지랩

사업은 교육자와 학습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유아문화예술교육,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이 된다. 유아문화예술교육은 관내 영유아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그림책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성남교육지원청, 성남형교육지원단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과연계 교육연극, 미디어 아트전 등의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장애인, 노인 등 문화적 취약계층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화성시 이음터는 공간의 활용성이 돋보이는 곳이다. 학교와 이음터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있어 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방과 후에는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공원처럼 사용할 수 있다. 꿈꾸는 예술터는 공간의 다양성이 두드러졌던 곳이다. 대부분의 공간들이 하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술가들이 연구했던 공간이 영유아들이 놀이 예술을 경험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세대별, 계층별로 문화예술교육 협력망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개발하여 운영한다. 진정 남녀노소 문화예술 향유 기회 누릴 수 있는 곳이다.



공간을 둘러보는 평택문화원·평택시 관계자

화성시 이음터와 성남 꿈꾸는 예술터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의 장을 펼쳐, 다른 사람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타인에게 제공하는 모습이 선순환의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다. 평택문화원도 우리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그것을 토대로 리모델링, 공간조성을 하고, 시민들과 함께 채워나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되어야 한다. **소사별**

평택문화원이 걸어온 길

평택문화원은

지역사회 개발과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1953년 개원하였으며,

여러 사업을 통하여 평택시민과 함께

지역문화 창조와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 ▶ **평택의 고유문화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 지역사의 조사·연구, 사료의 수집 및 보존
 - 문화 관련 자료수집·보존 및 보급
- ▶ **평택시 문화행사 개최**
- ▶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 ▶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 ▶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본원의 목적사업 등**

▶ 전통문화 발굴보존 사업

- 소사별단오제
- 평택시 정월대보름
-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 지역 전통문화 발굴 및 재연

▶ 웃다리문화촌 운영

- 전시기획·운영
- 전시관, 운동장, 세미나실 등 시설대관
- 체험학습 프로그램
- 축제 등 지역문화사업

▶ 지역사 연구 및 발간 사업

- 평택학연구소 운영
- 지역사 발간 및 연구사업
- 마을조사 사업
- 지역사 사료 수집

▶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 문화유산 활용사업
- 평택시티투어
- 평택학시민강좌

▶ 기타 지역문화예술 활동

-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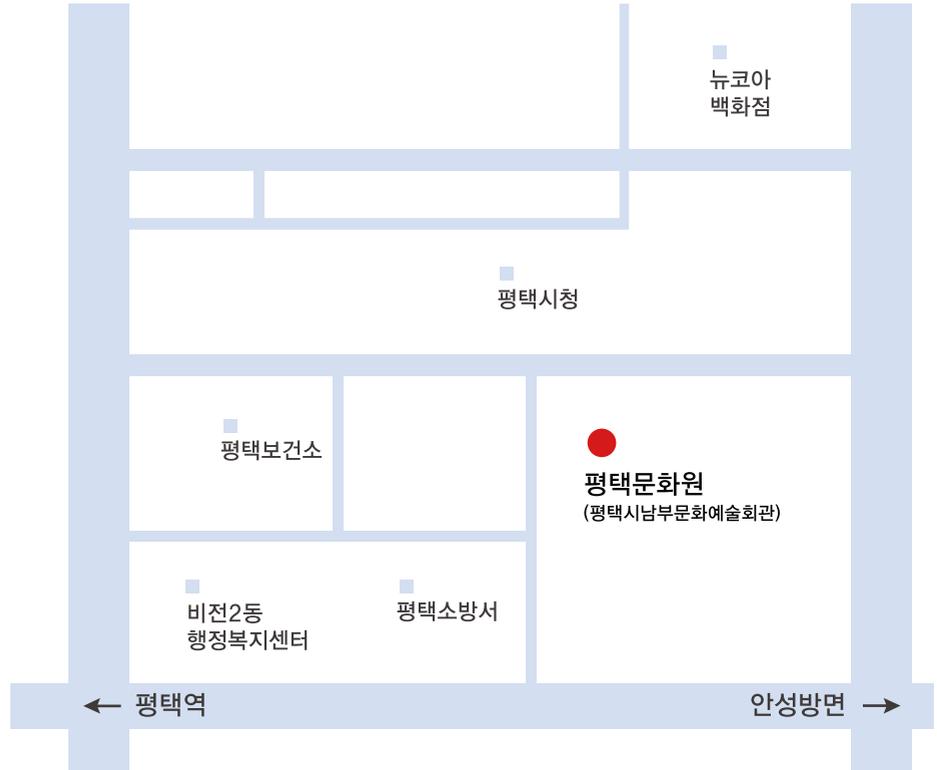
평택문화원의 연혁

2021년 12월 31일	평택문화원 68주년 《평택문화원사》 발간
2021년 12월 15일	평택문화원 창립 68주년 기념식(평택시청 대회의실)
2020년 9월 24일	웃다리문화촌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금상 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2020년 3월 1일	제14대 평택문화원장 이보선 취임
2018년 10월 23일	웃다리문화촌 2018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우수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5년 10월 9일	제2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최우수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4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 진흥표창(평택문화원장)
2014년 12월 19일	2014년 경기도 우수문화원상 수상
2014년 10월 17일	제10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경기도지사상)
2014년 10월 5일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은상 수상(강원도지사상)
2013년 9월 28일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경기도지사상)
2012년 3월 1일	제12~13대 평택문화원장 김은호 취임(재임 2012. 3. 1~2020. 2. 29)
2009년 10월 16일	대한민국문화훈장 수상(평택문화원장)
2007년 12월 31일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운영평가 표창 수상(문화부장관상)
2007년 10월 27일	2007 실버문화학교 프로그램 전국대상 수상(문화부장관상)
2006년 8월 1일	문화예술 체험학습장 웃다리문화촌 개관
2005년 3월 9일	평택시문화원을 평택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2003년 7월 28일	제10~11대 평택문화원장 오용원 취임(재임 2003. 7. 28~2012. 2. 29)
1998년 3월 6일	한국문화학교 지정
1995년 7월 27일	평택시문화원으로 통합(평택시문화원, 송탄문화원, 평택군문화원) 통합 초대원장, 제8~9대 평택시문화원장 유재호 취임(재임 1995. 7. 27~2003. 7. 27)
1994년 8월 24일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 문화체육부장관 제137호
1993년 10월 27일	사무국 이전(비전동 847 남부문화회관 내)
1993년 2월 26일	제7대 평택시문화원장 조중환 원장 취임(재임 1993. 2. 26~1995. 7. 26)
1989년 10월 11일	평택문화원을 평택시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1987년 8월 29일	문화공보부 승인(변경)
1986년 10월 16일	사무국 이전(합정동 294 평택시종합운동장 내)
1982년 12월 15일	제4~6대 평택군문화원장 김창복 원장 취임(재임 1982. 12. 15~1993. 7. 26)
1978년 2월 25일	제3대 평택문화원장 이주상 원장 취임(재임 1978. 2. 25~1982. 12. 14)
1972년 12월 11일	문화공보부 인가
1971년 2월 20일	평택문화원 창립총회, 제1~2대 평택문화원장 민형식(재임 1971. 2. 2~1978. 2. 24)
1953년	평택문화원 개원(설립자 장순영, 사설문화원)

평택문화원 임직원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원 장	이보선	(주)주광에너지 대표이사	이 사	박용민	로얄안경원 대표
부 원 장	최창목	(주)대한공업사 대표이사		박기철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오은영	평택대학교 실용음악학과 교수		이순녀	풍년떡푸드 대표
	강기종	(주)디앤디 대표이사		이보형	세무법인 세방 대표세무사
	신태식	(주)현대AVC사장		안광훈	하나농원&하나이벤트 대표
	이재덕	(주)삼보텔레콤 대표이사		이충원	(주)씨앤아이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감 사	박정순	고려인삼농원 대표		유범동	캠프햄프리스 수석 공보관
	배우학	베스트인슈&렌트카 대표		김복남	여성농업인 평택시 연합회장
운 영 위 원	윤석규	평택대학교 명예교수		최시영	경기문화재단 이사
	박철순	(주)평택한냉 대표이사		김종구	평택가우디미술학원장
	김일강	(주)금풍 대표이사		김종수	평택농악보존회 이수자
평택학연구소장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이형범	디자인창고 대표
친 목 위 원 장	김희경	굿모닝챔버오케스트라 단장		건동훈	좋은축량 대표
웃다리문화촌장	조혜경	前 평택대학교 교수		원광혁	(주)YES네트웍스
이 사	김미영	前 국제로터리 3750 총재	원영준	도시디자인 대표	
	조남규	(주)JNJ아트컨벤션 대표이사	윤기철	-	
	오중근	굿모닝병원 이사	김현주	라운누리통합교육연구소장	
	한상희	(주)동양틀테크 대표이사	임영옥	서울서예협회	
	강길복	평택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오민영	사무국장	
	이승우	(주)하이오 대표이사	유연주	문화기획부	
	여운정	금호타이어 원곡대리점 대표	최희련		
	장종덕	장종덕한의원 원장	강수진		
	최창환	목화회원 대표&평택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박송이	문화사업부	
	김규동	(주)케이와이케이종합건설 대표이사	김한슬		
	김성환	(주)에이치코리아 대표이사	최치선		
	공서구	알리앙스 대표	황수근		
	이계문	서평택새마을금고 전무	김채민		
	안도향	前 보스턴어학원장	정진솔		
김진수	치아사랑 치과의원 원장				

평택문화원 오시는 길



대표전화 031.655.2002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문화원

전송 031.654.8807
홈페이지 www.ptmunhwa.or.kr

제41호 소사별 원고 모집

평택의 종합문예지 《소사별》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시민여러분의 글과 작품을 접수 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작품은 커뮤니케이션위원회에서 검토 후 《소사별》에 실어 드립니다.

《소사별》에 작품과 글을 보내주실 분께

- 원고마감 : 2024년 2월 29일(목)
- 원고 접수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문화원
전화 : 031.655.2002 전송 : 031.654.8807
이메일 : ptmhw@naver.com

- ※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세요.
- ※ 원고,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